

영맥

성경맥잡기반 교재

데이빗목사 지음

홀리타임즈

목 차

CONTENTS





제 1 부	성경구조에 대한 이해 _ 4
제 2 부	성경지형에 대한 이해 _ 33
제 3 부	구속계획에 대한 이해 _ 71
제 4 부	천국에 대한 이해 _ 93
제 5 부	주님의 구속에 대한 이해 _ 126
제 6 부	영적흐름에 대한 이해 _ 140
제 7 장	주님의 보혈에 대한 이해 _ 162





1 부

/

성경구조에 대한 이해

제 1 장 성경개론



성경저자

- 구약성경: 약 30명
- 신약성경: 약 9명

성경기록

- 구약성경: 대략 1000년간
- 신약성경: AD100년 이내

성경언어

- 구약성경: 히브리어(극히 일부는 아람어)
- 신약성경: 헬라어

성경구조

- 성경(66권): 구약(39권), 신약(27권)
- 장(1,189장): 구약(929장), 신약(260장)
- 절(31,173절): 구약(23,214절), 신약(7,959절)

성경역본

- 최초본: 모세의 돌판
- 사본: 바티칸사본, 시나사본을 포함하여 총 5,000여개
- 정경채택: 397년 카르타고 총회에서 신구약 66권을 정경으로 채택

1. 성경저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저자는 약 40명에 의해 쓰여졌다. 비록 40여명의 저자에 의해 성경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인 것이다(딤후 3:16).

가. 구약성경: 약 30명의 저자에 의해 쓰여졌다.

나. 신약성경: 약 9명의 저자에 의해 쓰여졌다.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2. 성경기록:

성경은 1600년에 가까운 시간에 걸쳐 기록되었다. 그렇게 긴 세월동안 성경이 씌여졌지만 성경 내용은 한결같이 구원의 계시로 일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령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딤후 3:16).

가. 구약성경: 대략 1000년 기간에 걸쳐 쓰여졌다. 최초로 쓰여진 모세오경은 BC 1050~1000년경에 쓰여졌다고 본다.

나. 신약성경: AD100 내에 쓰여졌다. 신약의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AD 90~96년경에 쓰여졌다.

3. 성경언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졌다.

가. 구약성경:

- 1) 히브리어로 쓰여졌다(극히 일부분은 아람어로 쓰여졌다).
- 2) 아람어는 포로시대 이후에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온 바벨론 지방의 언어이다. 포로 귀환 이후에 자연스럽게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을 것이다. "달리다굼"이나 "엘리 엘리

리 라마사박다니" 같은 말은 모두 아람어이다.

- 3) 이스라엘 멸망 이후 근 2000년동안 거의 사라지게 되었던 히브리어가 벤 예후다 (1858~1922)라는 유대인에 의해 극적으로 회복하게 되어 오늘날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말하고 일상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나. 신약성경:

- 1) 헬라어로 쓰여졌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통용된 언어가 "코이네"라는 헬라어였기때문에 복음 전파 차원에서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 2) 하지만 사실상 그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로마였으며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성경이 쓰여져야만 했다.
- 3) 기원후 400년경에 출판된 라틴어 성경 '불가타' 이후부터 라틴어가 교회의 언어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는 카톨릭이 로마 제국의 종교였기 때문이다.

4. 성경구조:

가. 성경(66권):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나. 모두 1,189장(구약 929장, 신약 260장),
31,173절(구약 23,214절, 신약 7,959절)로 구
성되어 있다.

다. 성경의 장절(: chapters and verses of Bible)은 1555년 라틴어 성경 때 최초로 만들어졌다. 오늘날의 성경은 1560년판인 '제네바 성경'의 장절 구분을 받아 드렸다.

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명칭은 대략 2세기 말부터 불려졌다. 이는 모세의 언약(출 24:8)과 새언약(눅 22:20)을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구약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내용이고 신약성경은 오신 이후의 기록이다.

5. 성경역본

가. 최초본은 모세의 돌판에 기록되었으며, 양의 가죽이나 파피루스에 필사본을 기록하였다. 필사본은 인쇄술이 발명된 15세기까지(1455년 정도) 사본으로 각 지역에 전해졌다.

나. 현재까지 발견된 고대의 사본은 대략 5천개에 달한다. 그 중에서 바티칸사본(B), 시내사본(a) 등이 유명하고 4-9세기 것으로는 대략 40여개가 된다.

다. AD397년(카르타고총회)에서 신약 27권이 구약 39권과 더불어 공식 정경으로 확정되었다.

라. 70인 역본: 라틴어의 70(셉투아진타, septuaginta)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셉투아진트"(Septuagint)로도 불리며 LXX로 간략히 표기한다.

"70인역"은 기원전 300년경에 코이네 그리스어(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을 말한다. 현재에도 그리스정교회에서 공식전례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70인역에는 히브리어 성경 39권과 헬라어(그리스어)로 쓰여진 외경 7권(제2경전)이 포함되어 있다.

바. 불가타 역본: 불가타 역본은 기원후 400년경에 신부 제롬에 의해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다. 그 당시 존재했던 수많은 라틴어 번역들을 총정리한 라틴어 성경으로 오늘날 카톨릭의 표준성경이다. 불가타 역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는 라틴어 성경을 사용하게 되었다.

6. 성경의 변천과정

가. 70인역에는 히브리어 성경 39권과 외경 7권(제2경전)이 함께 번역되었다. 이렇게 46권

(39권 + 7권)으로 번역된 정경을 가리켜 '알렉산드리아 정경'이라고 부른다. 추가된 외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비트서(Tobit)
- 유딧서(Judith)
- 지혜서(Wisdom of Solomon, 솔로몬의 지혜서)
- 집회서(Sirach, Ecclesiasticus, 시락서)
- 바룩서(Baruch)
- 마카베오기 상권(1 Maccabees)
- 마카베오기 하권(2 Maccabees)

나. 외경은 정경과 대비되며, 그리스어 아포크리포스(apokryphos:감추어진)에서 유래한 말로서, 원래 구약의 '70인역'에는 포함되고 히브리어 성경에 들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처음엔 문학적 용어로 일반대중에는 금지된 책이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BC 2세기부터 AD 1세기 사이에 쓰여진 14권 혹은 15권의 특별한 책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이에 속하는 책은 다음과 같다. 《제1에스드라

서》《제2에스드라서》《토비트》《유딧》《에스텔》《지혜서》《집회서》《바룩서》《예레미야의 편지》《아자리아의 기도와 세 젊은이의 노래》《수산나》《벨과 뱀》《므낏세의 기도》《마카베오상()》《마카베오하()》 등이다. 영어로 편집된 대부분의 외경은 《예레미야의 편지》를 《바룩서》의 마지막 장으로 취급하여 두 권을 하나로 묶고 있는데, 이 경우 외경은 총 14권이 된다.

다. 암니아회의(AD90)에서 오직 히브리어언어로 된 구약성경만을 정경으로 채택하고서 70인 역을 배제시켰다. 하지만 천주교회는 외경 7권이 포함된 알렉산드리아 정경을 교회 정식 정경으로 채택하였고 이것을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유지했던 것이다.

그때부터 교회는 외경 7권을 채택하는 '헬라어파'와 외경을 제외하는 '히브리어파'로 구분되었다. 헬라어파에서 카톨릭이 생겨났고 히브리어파에서 훗날 개신교가 탄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 그러다가 종교개혁 때에 루터가 히브리어 성경 39권만이 정경임을 천명하고서 카톨릭교회와 입장을 달리했다. 현재 개신교회는 루터의 입장을 따라 39권만 구약의 정경으로 삼고 있다.

라.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으로 인해 로마 카톨릭교회는 트랜트 종교회의(Trent Council, 1545-1563)를 열고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것을 그대로 전승하겠다고 천명했다.

회의	개신교	천주교	비고
70인역(알렉산드리아)	39권(히브리어성경) + 15권(외경)을 헬라어로 번역함		예수님과 제자들은 외경을 사용하지 않았음.
AD 90 (얌니아회의):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하기 위해 가진 회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언어로 되어있는 구약 39권 중 24권(소예언서는 1권으로 묶음)을 정경으로 채택	기독교회는 39권 + 외경 15권도 정경으로 채택(총 54권)	그 당시만해도 카톨릭이 없었음(AD313년 로마의 콘스탄틴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이후부터 카톨릭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AD397(카르타고회의)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채택	카톨릭교회도 똑같이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채택	
AD 16세기 종교개혁	루터에 의해 39권으로 확정(이때부터 개신교가 생성되었다)	카톨릭교회는 처음 기독교회계 속적으로 54권을 유지해 옴 39권 + 15권	
AD 1545-1563 트랜트 종교회의(Trent Council)		외경 15권 중에서 3권을 외경으로 취급함(총 51권) 39권 + 12권	에스드라스 상권과 하권, 므낫세기도
현재	구약39 +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채택(총 66권)	구약 51권 +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채택(총 78권)	

책	개신교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슬라브 정교회	조지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 ^[1]	시리아 정교회	캅트 정교회 ^[2]	에티오피아 정교회 ^[3]	아시리아 동방교회 ^[4]
창세기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출애굽기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레위기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민수기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신명기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여호수아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판관기 (사사기)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삿기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사울열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열왕기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역대기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모사세의 기도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부록으로만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에즈라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느헤미야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에스드라 상권(제 1서)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안 함	인정	인정 안 함
에스드라 하권(제 2서)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안 함	인정	인정 안 함
에스텔 (에스더)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에스텔 속편 (에스더 속편)	인정 안 함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토빗기	인정 안 함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유딧기	인정 안 함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솔기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시편 1-150장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시편 151장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부록으로만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시편 152-155장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예가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잠언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전도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아가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지혜서	인정 안 함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집회서	인정 안 함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이사야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예레미야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바룩서	인정 안 함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예레미야의 편지	인정 안 함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바룩 제2서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바룩의 편지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바룩 제3서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바룩 제4서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인정 안 함
에스겔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다니엘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다니엘 속편	인정 안 함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안 함
소예언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마카베오기 제1서 (삼권으로도 부름)	인정 안 함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안 함	인정
마카베오기 제2서 (하권으로도 부름)	인정 안 함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안 함	인정
마카베오기 제3서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부록으로만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마카베오기 제4서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부록으로만 인정)	인정 안 함 (부록으로만 인정)	인정 안 함 (부록으로만 인정)	인정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에녹서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인정 안 함
히브서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인정 안 함
마카비안 제1-3서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안 함	인정	인정 안 함

책	개신교 전통	로마 가톨릭 전통	동방 정교회 전통	오리엔트 정교회 전통	네스토리우스 전통
정경 복음서					
마태오 복음서 ^[5]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마르코 복음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루카 복음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요한 복음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사도의 역사					
사도행전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바울로 서신					
로마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코린토 1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코린토 2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갈라티아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에페소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필립비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콜로새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데살로니카 1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데살로니카 2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티모테오 1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티모테오 2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티토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필레몬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공동 서간					
히브리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야고보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베드로 1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베드로 2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요한 1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요한 2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요한 3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유다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묵시록					
요한 묵시록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제 2 장 구약성경의 구조



율법서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Pentateuch)은 '다섯 두루마리'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다섯 책을 말한다.

역사서 (12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사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의 내용을 담은 구약성경을 말한다.

시가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시가서와 지혜문서에 속한다. 모두 시문체로 기록되었지만, 욥기, 잠언, 전도서는 지혜문학에 속하는 책들이다.

대전지서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대전지서는 비교적 분량이 많은 선지서를 모은 것이다. 예레미야애가는 분량이 작지만 예레미야가 쓴 것이기 때문에 대전지서에 포함시켰다.

소선지서 (12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소선지서는 대전지서에 비해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분류된 것이다.

분류		성경	장수	약어	기록연대(BC)	기록저자
율법서 (모세오경)		창세기	50	창	1450-1400	모세
		출애굽기	40	출	1450-1400	모세
		레위기	27	레	1450-1400	모세
		민수기	36	민	1450-1400	모세
		신명기	34	신	1410-1395	모세
역사서	신정시대	여호수아	24	수	1370-1330	여호수아
		사사기	21	삿	1000	사무엘?
		룻기	4	룻	1011-931	사무엘?
	왕정시대	사무엘상	31	삼상	1050-931	사무엘?
		사무엘하	24	삼하	1010-931	갓과 나단?
		열왕기상	22	왕상	561-538	예레미야?
		열왕기하	25	왕하	561-538	예레미야?
		역대상	29	대상	450-400	에스라?
		역대하	36	대하	450-400	?
	포로귀환시대	에스라	10	스	458-444	에스라
느헤미야		13	느	420	느헤미야	
에스더		10	에	458-435	에스더	
시가서		욥기	42	욥	구약시대때	?
		시편	150	시	1450-1000	다윗 외 6명
		잠언	31	잠	1000-700	솔로몬
		전도서	12	전	935	솔로몬
		아가	8	아	900	솔로몬
예언서	대선지서	이사야	66	사	745-680	이사야
		예레미야	52	렘	627-580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5	애	586-585	예레미야
		에스겔	48	겔	583-571	에스겔
		다니엘	12	단	605-530	다니엘
	소선지서	호세아	14	호	790-710	호세아
		요엘	3	욥	830-400	요엘
		아모스	9	암	760-753	아모스
		오바다	1	옵	848-841	오바다
		요나	4	온	760	요나
		미가	7	미	735-698	미가
		나훔	3	나	663-621	나훔
		하박국	3	합	609-589	하박국
		스바냐	3	습	640-630	스바냐
		학개	2	학	520	학개
		스가랴	14	스	520-470	스가랴
		말라기	4	말	516	말라기

1. 구약성경의 구조

구약성경은 총 7개 시대로 구분되어진다.

가. 창조시대: 창조부터 아브라함 전까지(BC2100년경)의 시대를 말한다. 성경은 창세기와 욥기가 여기에 포함된다.

나. 족장시대: 아브라함(BC 2100년경)때부터 야곱의 애굽 이주 이전(BC 1876년경)까지의 시대를 말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이다.

다. 노예시대: 야곱가족의 애굽이주(BC 1876년)때부터 사사시대(BC1405)시작 전까지 시대를 말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은 민수기와 신명기이다.

라. 사사시대: 요단강을 건널 때(BC 1405년)부터 통일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BC 1050년)의 시대를 말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이다.

마. 통일왕국시대: 사울이 왕이 된 때부터(BC 1050년) 솔로몬의 통치가 끝날 때까지(BC 930년)의 시대를 말한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각각 40년씩 통치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은 사무엘 상권과 하권, 시편, 잠언, 전도서, 미가서이다.

바. 분열왕국시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될 때부터(BC 930년) 포로귀환 하기 전까지(BC 537년)의 시대를 말한다. 북왕국은 BC 722년에 앗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은 열왕기상권과 하권, 역대 상권과 하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애가, 호세아, 오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훔, 스바냐, 오바다, 하박국이다.

사. 포로귀환시대: 포로에서 귀환한 때부터(BC 537년) 말라기까지(BC 400년)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

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이다.

2. 구약성경의 분류

가. 구약성경의 분류

- 1)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우며 토라라고 불리운다.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을 말한다(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 2) 역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의 내용을 담은 책들이다. 역사서는 총 12권이다(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 3) 시가서: 시가서에는 총 5권이 포함된다(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시편과

아가서는 시가서이지만 읍기, 잠언, 전도서는 지혜문학에 속한다.

- 4) 대선지서: 대선지서는 비교적 분량이 많은 선지자들을 의미한다. 대선지서라고 해서 소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것은 아니다. 예레미야애가는 분량이 작지만 예레미야가 쓴 것이기 때문에 대선지서에 포함되었다.
- 5) 소선지서: 소선지서는 책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분류되었을 뿐이다. 총 12권으로 구성되었다(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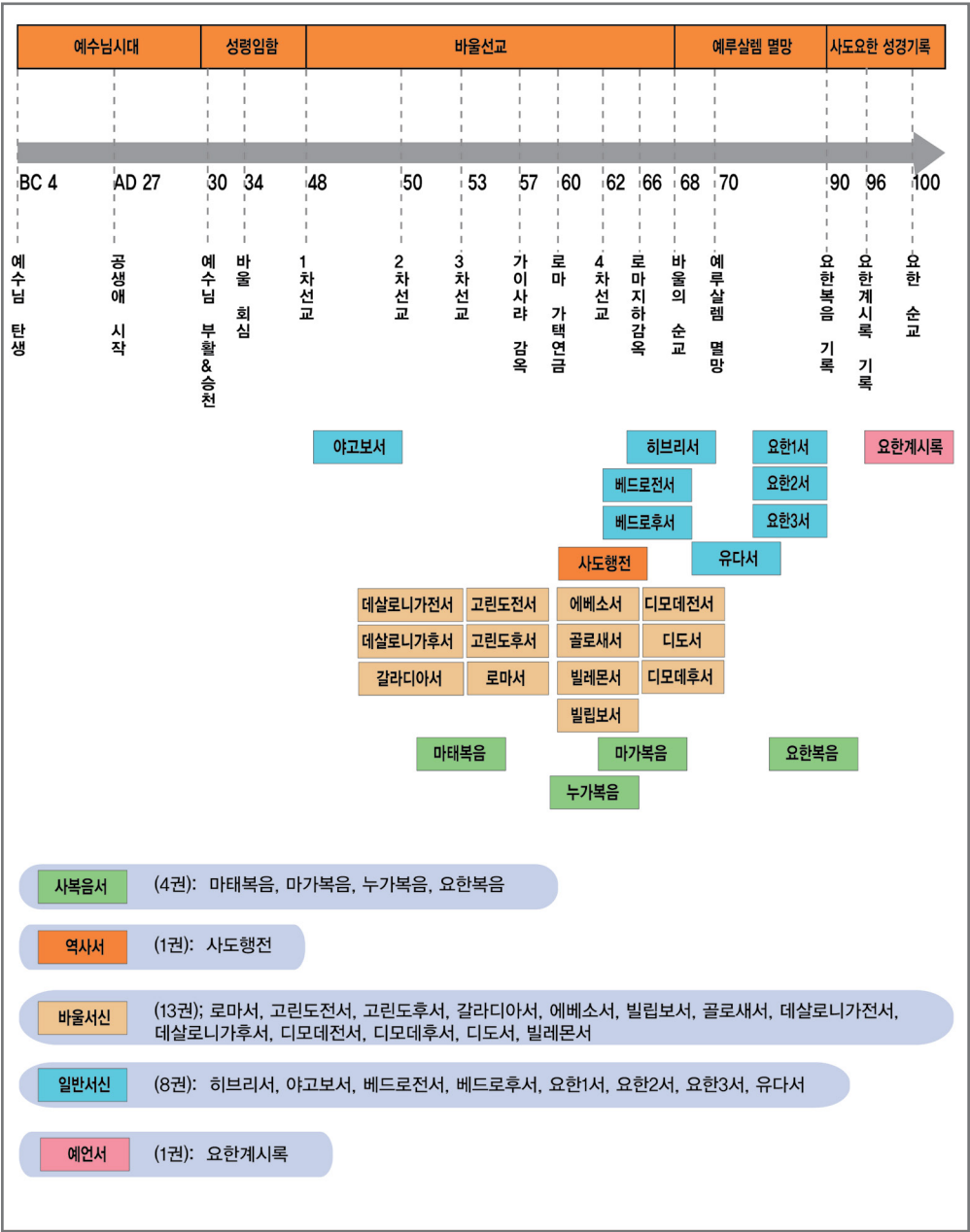
나. 역사서는 신정시대와 왕정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시대로 구분된다.

- 1) 신정시대: 신정시대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직접 통치한 때이다. 이때는 백성의 왕이 없었다. 이에 해당되는 성경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이다.

- 2) 왕정시대: 왕정시대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이다. 이 시대는 통일왕국시대와 분열왕국시대로 구분되며 앗수르에 멸망 당하기까지 대략 300년간 지속되었다(남왕국은 대략 400년간 지속되었다).
- 3) 포로귀환시대: 포로귀환 후(BC 536년)부터 말라기 선지자(BC 400년경)까지를 가리킨다. 이 시대 이후에는 영적암흑시대라고 말한다. 영적암흑시대를 대표할 만한 성경은 전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시대이다.

제 3 장 신약성경의 구조



분류		성경	장수	약어	기록연대	기록저자
복음서		마태복음	28	마	50-70	마태
		마가복음	16	막	65-70	마가
		누가복음	24	눅	61-63	누가
		요한복음	21	요	80-90	사도요한
역사서		사도행전	28	행	61-63	누가
서신서	바울서신	로마서	16	롬	57	바울
		고린도전서	16	고전	55-56	바울
		고린도후서	13	고후	55-56	바울
		갈라디아서	6	갈	56	바울
	옥중서신	에베소서	6	엡	62	바울
		빌립보서	4	빌	60-62	바울
		골로새서	4	골	61-63	바울
	재림서신	데살로니가전서	5	살전	51-53	바울
		데살로니가후서	3	살후	51-53	바울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6	딤후	66-67	바울
		디모데후서	4	딤후	66-67	바울
		디도서	3	딤후	63-65	바울
	옥중서신	빌레몬서	1	몬	60-62	바울
	일반서신	히브리서	13	히	64-67	?
		야고보서	5	약	45-49/60	야고보
		베드로전서	5	벵전	62-64	베드로
		베드로후서	3	벵후	62-64	베드로
		요한1서	5	요일	85-96	사도요한
		요한2서	1	요이	85-96	사도요한
		요한3서	1	요삼	85-96	사도요한
		유다서	1	유	60-80	유다
예언서		요한계시록	22	계	90-96	사도요한

1. 신약성경의 구조

신약성경은 총 5개의 시대로 구분된다.

가. 예수님시대: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시대를 말한다. 예수님은 BC4년에 태어나셨고 AD27년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으며 AD30년에 부활 승천하셨다.

나. 성령시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행 2:1-4). 이때부터 성령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성령시대에 살고 있다.

다. 바울선교: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여 복음전파를 시작한다. 그는 AD48년부터 시작하여 AD68년 죽기까지 복음을 전파했다(행 20:24). 주로 이때 서신서들이 기록되었다.

라. 예루살렘 멸망: AD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만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점차 심해졌다. 기독교의 핍박은 AD313년 콘스탄틴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성도들은 카타콤에서 생활했으며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사수했다.

마. 사도요한 성경기록 :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였던 사도요한이 죽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다. 그는 12제자 중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였다.

2. 신약성경의 분류

가. 신약성경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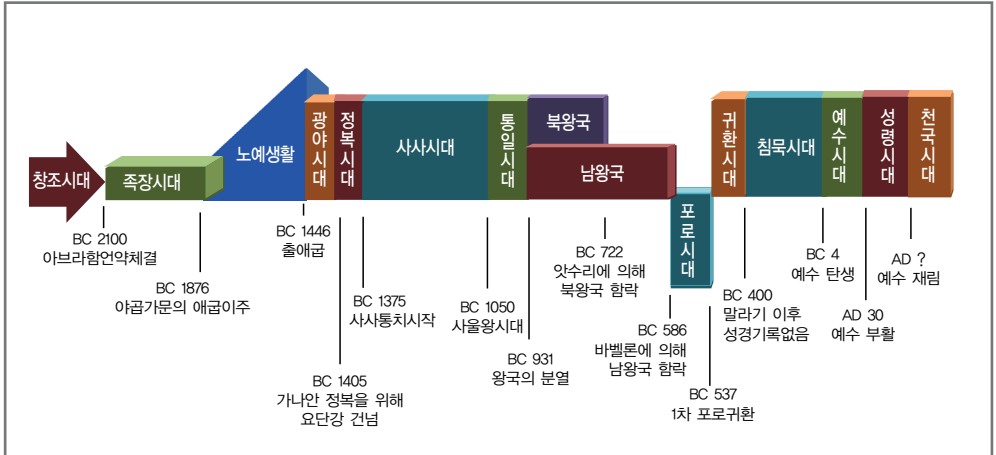
- 1) 사복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훗날에 기록한 것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있다.

- 2) 역사서: 신약의 역사는 사도행전 뿐이다.
원래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이름
하였다. 사도들은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
는 결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을
것이다.
- 3) 바울서신: 바울서신에는 13권이 있다(로
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
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
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만일
히브리서가 바울의 서신이라면 바울의
서신서는 총 14권이 된다. 하지만 히브리
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 4) 일반서신: 바울이 쓴 서신이 아닌 서신서
를 말한다. 여기에는 저자 미상인 히브리
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
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
서, 사도요한이 쓴 요한1,2,3서와 요한계
시록,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유다서가

있다.

5) 예언서: 사도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이다. 사도요한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미래의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말세의 일어날 일과 천국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되었다.

제 4 장 시대별 성경구분



간단한 성경역사 요약

- BC 2100 -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언약체결 (창 15장)
- BC 2876 - 야곱가문의 애굽이주(창 46장, 출 1장)
- BC 1446 - 출애굽(애굽으로부터 탈출함)(출 12장)
- BC 1405 -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 건넌

(수 3장)

- BC 1375 - 여호수아가 죽음 후에 사사시대 열림(삿 1장)
- BC 1050 - 사울왕의 시대가 시작됨(삼상 9 장)
- BC 931 - 솔로몬 죽음 이후에 나라가 분열됨 (대하 10장)
- BC 722 - 앓수르에 의해 북왕국이 함락됨(왕 하 17장)
- BC 586 - 바벨론에 의해 남왕국이 함락됨(대 하 36장)
- BC 537 - 남왕국 백성이 포로생활에서 본국 으로 귀환함(대하 36장)
- BC 400 - 말라기 이후에 영적 암흑시대를 맞 음(말 4장)
- BC 4 - 예수님 탄생하심(마 1장)
- AD 30 - 예수님 부활&승천하심(마 28장)

BC(Before Christ) - 예수님 이전시대

AD(Anno Domini) - 예수님 이후시대(Year of L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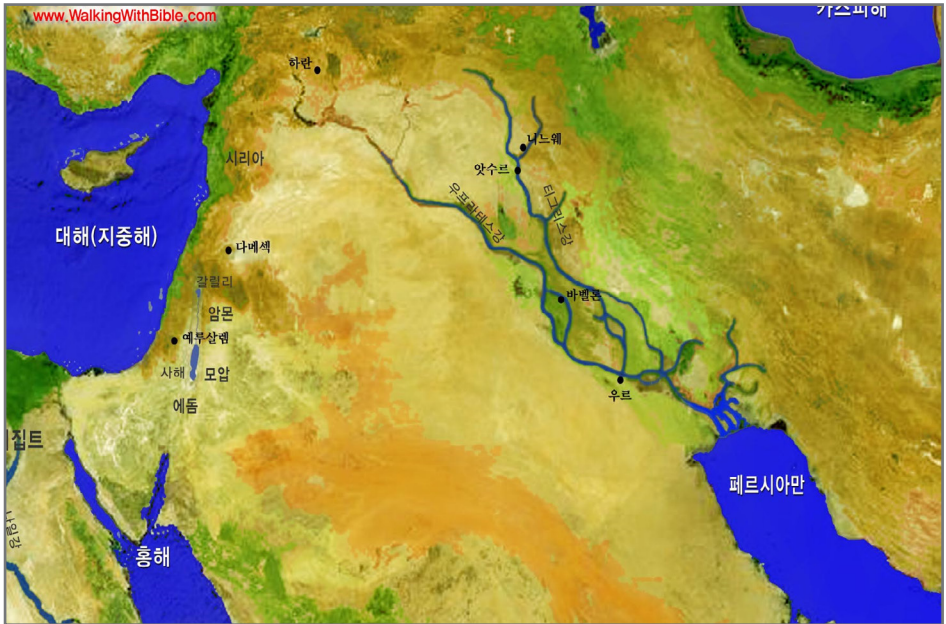


2 부

/

성경지형에 대한 이해

제 1 장 이스라엘을 둘러싼 바다



1. 지중해

‘대해’라고 불리던 이 바다는 이스라엘의 왼쪽에 위치한다.

2. 페르시아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 들어가는 바다로 인도양과 연결되어 있다.

3. 홍해

돼지 발굽 모양의 이 바다는 시내반도를 둘러싸고 있다.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곳이 바로 이 바다의 좌측 윗 부분이었다. 오늘날 수에즈 운하가 뚫린 곳이다.

4. 갈릴리바다(호수)

호수이지만 너무 넓어 바다라 불리었다. 해심 210m. 이 수역은 좁은 곳이 11km, 넓은 곳이 22km에서 60km까지 될 정도로 매우 큰 호수이다. 갈릴리호수는 네 가지 이름이 있다.

- (1) 긴네렛: 모양이 하프 같아서
- (2) 갈릴리: 갈릴리 지방에 있기 때문에
- (3) 게네사렛: 왕자의 정원이라는 뜻으로 경관이 아름다워서
- (4) 디베랴: 헤롯이 로마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아부하기 위해 세운 도시인 '디베랴'가 이 호수 주변에 있으므로

5. 요단강

헬몬산 눈이 녹아서 시작된 이 작은 강은 요단 계곡을 따라 100km를 흘러 사해로 들어간다.

6. 사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호수이며 해저 340m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이 나가지 못한다. 요단강과 달리 사해는 물이 흐르지 않아서 염분이 높다. 말 그대로 죽은 호수이다. 그래서 ‘사해’(Dead Sea)라고 불리지만 성경에는 사해라고는 나오지 않는다. 다음의 세가지 이름으로 불리운다.

(1) 염해/ 창 14:3

(2) 아라바의 바다/ 신3:17

(3) 동해/ 욥 2:20, 겔 47:18

7. 티그리스강 & 유프라데스강

이 두 강은 코브라의 혀처럼 갈라져 보이는데, 사실은 다른 곳에서 발원하여 페르시아만 앞에서 합해져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두 강의 사이에 있는 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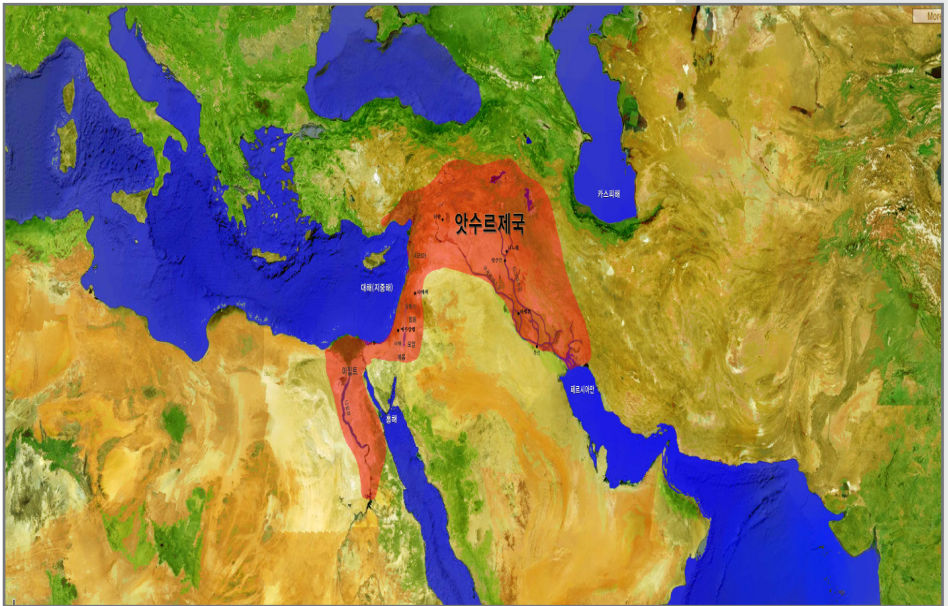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곳 근처에 에덴동산이 있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8. 나일강

애굽의 젖줄이며 삼각주 모양을 하고 있고 지중해로 흘러 들어간다.

제 2 장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

1. 앓수르 제국



- * 위치: 메소포타미아 북방, 바벨론 북쪽과 시리아 사막의 동쪽에 위치
- * 수도: 니르웨 (Nineveh)
- * 종족: 셈족 계통의 아카드인
- * 존립기간: BC 900-612년

- * 전성기 왕: 디글랏 빌레셀 3세(BC 744-727년). 살만에셀 5세(BC726-722년). 사르곤 2세 (BC721-705년). 산헤립(BC 704-681년)
- * 특기사항: BC 731년 다메섹, 바벨론, BC722년 북이스라엘을 각각 정복함. BC612년 <바벨론-메대 연합군>에 의해 정복됨. 매우 강압적이고 잔인한 식민 정책으로 제국 안에 반란이 끊이지 않음. 바벨론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음
- * 선민 관련 사항: 분열 왕국 시대 후반경인 BC 745년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함. 성경 열왕기하, 역대하와 연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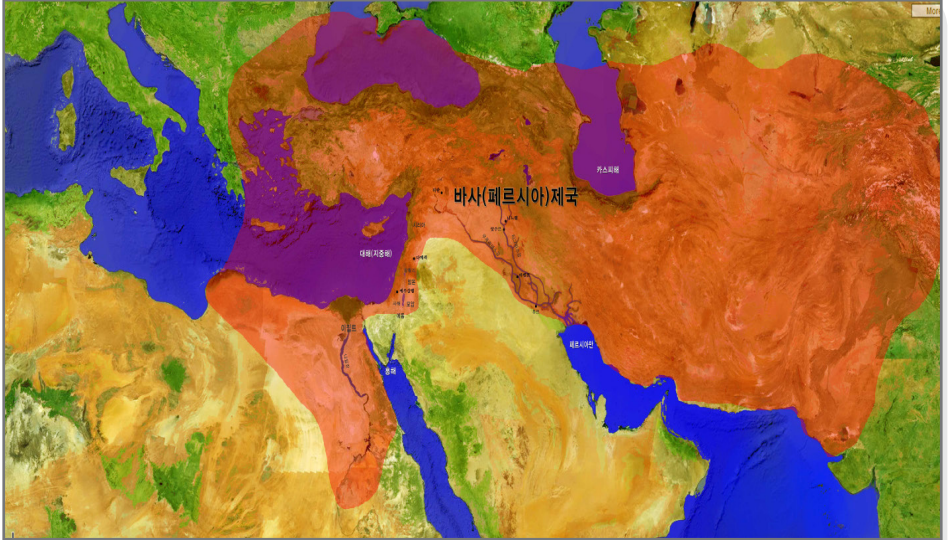
2. 바벨론 제국

- * 위치: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의 남부 메소포타미아 평야 지대
- * 수도: 바벨론(Babylon)
- * 종족: 수메르인과 셈족 계통의 아카드인 및 아모리인의 혼합
- * 존립기간: BC605-539년
- * 전성기 왕: 느부갓네살 2세 (BC605-562년)



- * 특기사항: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하여 사법, 천문학 등이 성행함, BC539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정복됨.
- * 선민관련 사항: 북이스라엘 멸망 후 남유다 제 16대 왕 요시아 통치 말기인 BC605년 경부터 영향을 끼침. BC605, 587, 586년 세 차례에 걸쳐 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감. 성경 다니엘서의 중요한 배경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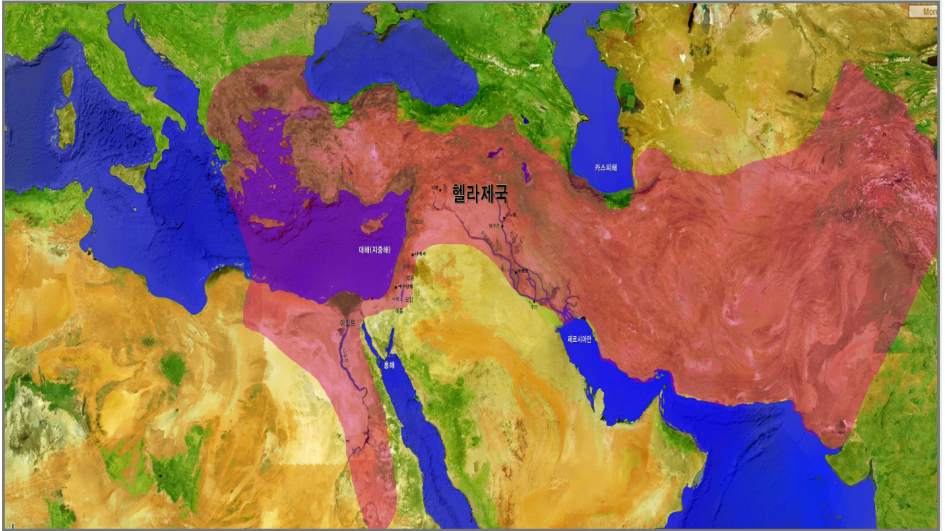
3. 바사(페르시아) 제국



- * 위치: 현재의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인도에서 구스까지 차지함
- * 수도: 수산, 악메다, 페르세폴리스, 바벨론
- * 종족: 셈족을 주축으로 한 여러 종족
- * 존립기간: BC539-331년
- * 전성기 왕: 다리오 1세 (BC521-468년)
- * 특기사항: 매우 관대하며 세련된 식민 정책을 펴. 왕실의 보호하에 조로아스터교가 번성. BC 331년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으로 멸망함.
- * 선민 관련 사항: 포로 귀환 시대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이 됨.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

더, 학개, 스가랴 등과 직접 관련됨.

4. 헬라 제국



- * 위치: 발칸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하여 페르시아 제국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함
- * 수도: 마케도니아(Macedonia)
- * 종족: 이오니아인과 도리아인 및 여러 종족
- * 존립기간: BC331-63년
- * 전성기 왕: 알렉산더 대왕 (BC332-323년)
- * 특기사항: 알렉산더 대왕 사후() 4개 지역으로 분할 통치됨. BC171-167년 로마와의

마케도니아 전쟁 패배로 멸망함.

- * 4개지역: 카산더 장군(마케도냐/헬라 지역), 리시마커스 장군(소아시아 지역), 톨레미 장군(애굽 지역), 셀류커스 장군(수리아 지역)
- * 선민 관련 사항: 다니엘 예언의 상당 부분과 연관됨(단7-12장). 헬라어 및 헬라 사상의 전 세계 유포로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에 지대한 영향 미침.

5. 로마 제국



- * 위치: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지중해에 인접한 서부 유럽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차지함
- * 수도: 로마(Rome)
- * 종족: 베니게인과 에트루리아인 중심
- * 존립기간: BC63년-AD1453년
- * 전성기 왕: 케사르, 폼페이, 옥타비아누스, 트라야누스
- * 특기사항: BC60년경 제1회, BC44년 제2회 삼두정치 실시. AD476년 게르만족의 침입에 의해 서로마 제국이, AD 1453년 오스만투르크의 침입에 의해 동로마 제국이 각각 멸망함.
- * 선민 관련 사항: 신약 시대의 배경이 됨. AD 250-313년까지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함. AD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함.

삼두정치 (Triumvirate)

란 로마의 삼인관료체제를 말합니다.

제1차 삼두정치:

율리우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사이에 맺어진 비공식적 협약

제2차 삼두정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 사이에 맺어진 공식적 협

제 3 장 영적으로 파악하는 세계정세

1. 다니엘 2장&7장을 통한 세계정세 파악

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단 2:32-35).

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그대로 보고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단 2:27-28).

다. 다니엘이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 1) 머리와 가슴과 팔, 배와 넓적다리, 다리, 발과 발가락, 돌을 보았다.
 - 머리: 정금으로 되어 있었다(단 2:38).
 - 가슴과 팔: 은으로 되어 있었다(단

[단 2:32]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यो 가슴과 팔들은 은ियो 배와 넓적다리는 놋ियो [단 2:33] 그 종아리는 철ियो 그 발은 열마는 철ियो 열마는 진흙이였나이다 [단 2:34]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매 [단 2:35]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숴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단 2:27]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단 2:28]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단 2:38]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무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2:39).

- 배와 넓적다리: 놋으로 되어 있었다
(단 2:39).
- 다리: 철로 되어 있었다(단 2:40).
- 발과 발가락: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었다(단 2:41-43).
- 뜨인 돌: 돌이 날라와 신상을 부서버렸
다(단 2:44-45).

2) 느브갓네살 왕의 꿈은 세계정세에 대한 것이었다.

- 정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제국을 의미했다.
-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벨론제국 뒤에 오는 바사제국을 의미했다.
-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제국을 의미했다. 헬라제국이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했다(39절).
- 철로 된 다리는 로마제국을 의미했다. 로마제국은 매우 강하여서 모든 나라를 멸망케 하는 힘이 있었다(40

[단 2:39]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단 2:40]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숴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부숴뜨리고 빵을 것이며

[단 2:41]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단 2:42]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숴질 만할 것이며 [단 2:43]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단 2:39]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단 2:40]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숴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부숴뜨리

절).

-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로마 제국 이후의 세계정세를 의미한다. 어떤 나라는 철과 같이 강하지만 어떤 나라는 진흙처럼 약할 것임을 예언했다. 또한 철과 진흙이 섞여 있지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인종이 섞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42-43절).
-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뜨인 돌이 산에서 날라와 신상을 부서버린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열국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뜻이다(44-45절).

고 빵을 것이며

[단 2:42]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 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숴질 만 할 것이며 [단 2:43]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단 2:44]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단 2:45]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다니엘서 2-7-8장 평행비교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8장

 금 바벨론제국 (BC626-539)	 사자 바벨론	
 은 메대/바사제국 (BC539-331)	 곰 메대-바사	 숫양 메대-바사
 놋 헬라제국 (BC331-63)	 표범 헬라	 숫염소 헬라  작은뿔 시리아 에페파네스 적그리스도 상징
 철 로마제국 (BC63-AD476 서로마) (BC63-AD1453 동로마)	 괴물 로마	
철/진흙 열국시대 (AD476-세상끝) 적그리스도 출현	 열뿔 열국시대 한뿔 적그리스도	
 돌 하나님나라 (세상끝-영원)	 천국 주님나라	 성전정화 주님의 재림 때에 성전정화 이뤄짐

신상의 부위	재료	다니엘의 해석	실제 역사와 비교
머리	정금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있는바벨 론 왕국(38절)	신 바벨론 제국 (BC606-539)
가슴과 팔	은	바벨론 왕국보다 못한 다른 나라 (39절)	메대, 바사(페르시아) 제국(BC539-331)
배와 넓적다리	놋	온 세계를 다스릴 나라(39절)	헬라 제국 (BC331-63)
다리	철	철같이 강한 힘으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나라(40절)	로마 제국 (BC63-AD376)
발과 발가락	철과 진흙	철의 제국이 분열한 여러 왕국, 철 과 진흙이 섞여있어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약할 것임(41-43절)	로마제국 이후 멸망할 모든 나라(AD476-세 상 역사의 종말)
신상을 무너뜨림	돌	세상의 열국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

2. 다니엘이 본 짐승(단 7장)

가. 다니엘 역시 사도요한처럼 이 세상의 징조에 대해 환상을 보았다(단 7:4-6).

나. 다니엘이 보았던 짐승의 순서는 가장 먼저 '사자'였다. 그 다음에는 '곰'이고 세번째는 '표범'이었다. 맨 나중에 언급된 짐승은 '철과 같은 모습을 가진 짐승'이었다.

다. 성경학자들은 '사자'로 표현될만한 나라를 '바벨론제국'이라 말하고 있으며 '곰'으로 표현되는 나라는 '바사제국'이며 '표범'으로 표현되는 나라는 '헬라제국'이며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철과 같은 짐승'은 '로마제국'으로 말하고 있다.

라. 하지만 짐승은 어느 특정한 나라를 의미한다고 보다는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훼방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모습이라고

[단 7: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단 7:5]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 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단 7: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보는 것이 더욱 영적인 해석이 될 것이다.

라. 물론 성경학자들의 생각처럼 각각의 짐승이 대표하는 나라들이 이 세상의 재앙을 불러 일으키고 성도를 핍박하는 짐승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오히려 짐승들의 활동은 그렇게 대표하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와 민족에 퍼져 있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3. 사도요한이 본 짐승(계 13장)

가. 사도요한이 보았던 세 짐승은 다니엘이 보았던 짐승과 같다(계 13:2).

[계 13: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나. 다니엘과 사도요한이 바라봤던 짐승들은 모두 '짐승'에 대한 상징적인 것들이다.

1) 짐승은 '사자'처럼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 2) 또한 짐승은 '곰'처럼 그 힘과 능력이 강할 것이며 '표범'처럼 그 무자비함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다.

다. 사도요한은 짐승의 모습이 3가지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다니엘은 짐승의 모습을 4가지로 설명했다.

- 1) 다니엘은 네 가지 짐승을 설명할 때에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짐승들을 설명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도요한이 언급한 짐승의 순서와 다니엘이 언급한 짐승의 순서가 다른 것이다.
- 2) 사도요한은 짐승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특정한 짐승들을 언급하며 설명했던 것이지만 다니엘은 짐승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다 구체적이고도 시대적으로 설명했던 것이다(단 7:7-8).

[단 7:7]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 가 있어서 먹고 부숴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단 7: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뻗었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4. 짐승의 정체

가. 짐승은 이처럼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훼방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는데 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그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1) 어느 특정한 나라에 의해 이 세상의 악이 지배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짐승의 세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 2)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바벨론제국'과 '바사제국', '헬라제국', 그리고 '로마제국'만 언급하고 있지만 이렇게 언급된 4개의 제국 외에도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동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제국들에서도 짐

승의 흔적은 어김없이 찾아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 대한 생각을 보다
폭 넓게 잡아야 할 것이다.

나. 하나님을 훼방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짐승은 그 전문성을 대를 이어 존속해 오고 있다.

- 1) 짐승의 맡은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위대한 왕이 사라지면 그보다 더 악한 왕이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게 되는 것은 짐승의 끈질긴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다.
- 2) 하나님에 의해 밟히면 밟힐수록 더욱 강하게 살아나는 짐승의 모습은 사람의 발에 밟히면 밟힐수록 더욱 살아나는 잡초와도 같다.
- 3) 이러한 짐승의 전문성은 시대를 거듭하여

이어지고 있으며 마치 죽은 것 같았으나
또 다시 살아나는 잡초와 같은 모습을 보
게 한다(계 13:4-8).

다. 사탄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물론 사람
들은 사탄에게도 경배를 한다. 하지만 사탄으
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에게도 경배를 한다
(계 13:4-8).

- 1) 이러한 모습은 마치 성도들이 하나님아버
지를 경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과 같
다.
- 2) 사탄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에서 하
나님을 흉내내고 천국을 흉내냅니다. 심
지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까지 흉내를 내기 위해
발악을 한다.

[계 13: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 붙어 싸우리요 하더라 [계 13:5]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계 13: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계 13: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계 13: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 3)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오직 주님 뿐이시며 결코 짐승은 그것까지 흉내 내지 못한다. 이것이 주님의 위대함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귀를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라.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마흔 두 달 일할 권세를 받다(계 13:5).

[계 13:5]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 1) 42개월은 3년 6개월이다. 이는 이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까지를 의미한다.
- 2) 사탄은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서 하나님을 대적해 왔다. 이러한 사탄의 활동은 짐승에게도 똑 같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 3) 짐승 역시 이 세상이 창조 된 때부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것이다.

마. 사도요한은 짐승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사명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계 13:6).

- 1) 짐승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을 훼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훼방하는 것이다.
- 2)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한다.
- 3) 짐승은 이 땅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성도를 핍박할 권세를 사탄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계 13:7).

다. 짐승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핍박할 때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할 것이다.

- 1) 저들이 짐승을 경배하는 이유는 살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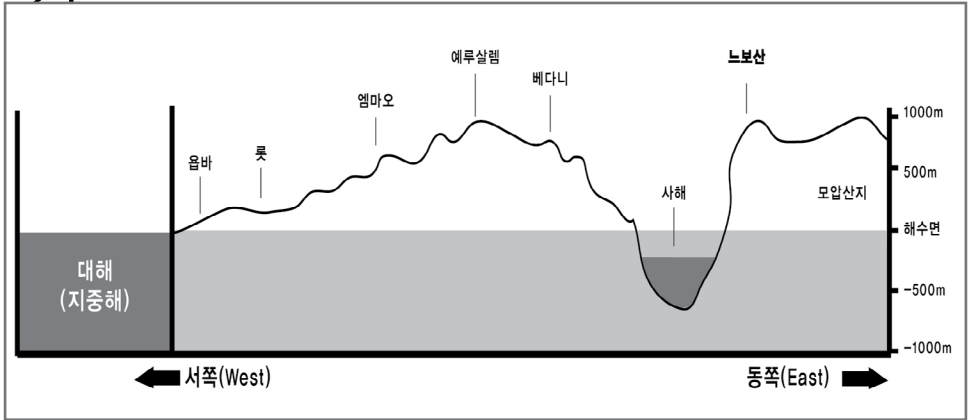
[계 13: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계 13: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2) 그들은 모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짐승을 경배했기 때문이다.

라. 하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결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주님만을 경배할 뿐이다.

제 4 장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



1. 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징

가.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한다. (삿 20:1, 삼상 3:20)

나. 남북의 길이: 헬몬산에서 네게브 사막까지 대략 240km로써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길이에 해당한다.

다. 동서의 길이: 지중해와 요단 동편의 사막까지

[삿 20:1]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삼상 3:20]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대략 북단이 45km남단이 85km이다. 이는 각각 서울-인천, 서울-천안 사이의 거리에 해당된다.

라. 이스라엘의 면적은 대략 22,000km²로써 대한민국 약 1/6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면적은 122,762km²)

마. 이스라엘 지역은 예루살렘이 제일 높고 사해가 제일 낮다(그림 참조).

2. 이스라엘의 토양

이스라엘은 대부분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회암은 비교적 단단하여 잘 부서지지 않지만 흩이 되면 매우 비옥한 토양이 된다. 석회암은 빗물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금방 땅은 마르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하수가 풍부하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우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라엘은 천연적으로 침식동굴을 많이 가지고 있다.

가. 해안 평야: 대부분 퇴적암으로 되어 있다.

나. 남부 네게브 지역의 광야: 암염(岩鹽) 또는 불고 노란 돌들과 바위 덩어리로 되어 있다.

다. 팔레스틴 동부를 이루고 있는 아라비아 광야: 전형적인 모래사막 지역으로 대부분 석회암(limestone) 또는 백악(白堊, chalk)으로 되어 있다.

3. 이스라엘의 기후

가. 북위 30도와 33도 사이에 위치한 아열대 지방이다.

나. 지중해와 인접한 연고로 전반적으로는 소위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을 갖고 있다.

다.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대신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있다.

- 1) 건기: 4월에서 9월까지의 6개월간, 5월부터 9월 초순까지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근동지방은 태양열 반사량이 지구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7월-9월 경의 여름 평균 기온은 20℃-28℃사이이며 최고 32℃~37℃까지 올라간다.
- 2) 우기: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 물 보존력이 약하다. 이러한 이유들이 복합 작용을 하여 팔레스틴에는 극심한 가뭄이 수년씩 계속되는 수가 많다.

라. 비가 가장 많이 오는 1-2월경을 겨울, 반대로 가장 뜨거운 7-9월을 여름이라 한다.

마. 이스라엘의 우기철은 이른비, 겨울비, 늦은비로 구분된다. 이른비는 10월~11월경에 내린다. 겨울비는 여름동안 극도로 건조해진 땅에

물기를 뿌려주는 정도로 적은 양이 내린다. 겨울비는 12월~2월 사이에 내리는데 일년 중의 강우량 대부분이 이 기간에 내린다. 늦은 비는 3월~4월경에 내리는데 이를 '봄비'라고 부른다.

바. 이스라엘은 이슬이 연간 260일이나 내린다. 지중해와 요단강의 습기가 심한 일교차로 인하여 이슬로 변하는데 이슬은 농경에 많은 도움을 준다.

4.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가?

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다(레 20:24).

나. 하지만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는 가나안 땅은 비도 오지 않을 뿐 아니라 먹을 사막과 같은 땅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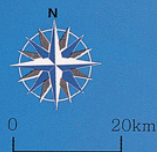
[레 20:24]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서 사는데 매우 힘든 장소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그런 땅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감사한 땅이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집과 땅과 농장과 재산을 모두 차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거다.

라. 우리의 인생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 이는 현재 주어진 복에 만족하는 것이다. 아무 것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전히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다.

성서시대의 팔레스틴 전도



대 해
(지중해)



제 5 장 이스라엘의 도시

1. 예루살렘: 다윗때부터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다.
'평화의 도시'란 뜻이다.
2.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에 의해 수도가 되었다.
3. 가버나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갈릴리 북부의 어업도시이다.
4. 나사렛: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으로 갈릴릴 남서쪽에 위치한 농촌지역이다.
5. 셉포리스: 갈릴리지역의 수도. 헤롯안디바가 지은 극장이 있다(5천명 수용).
6. 예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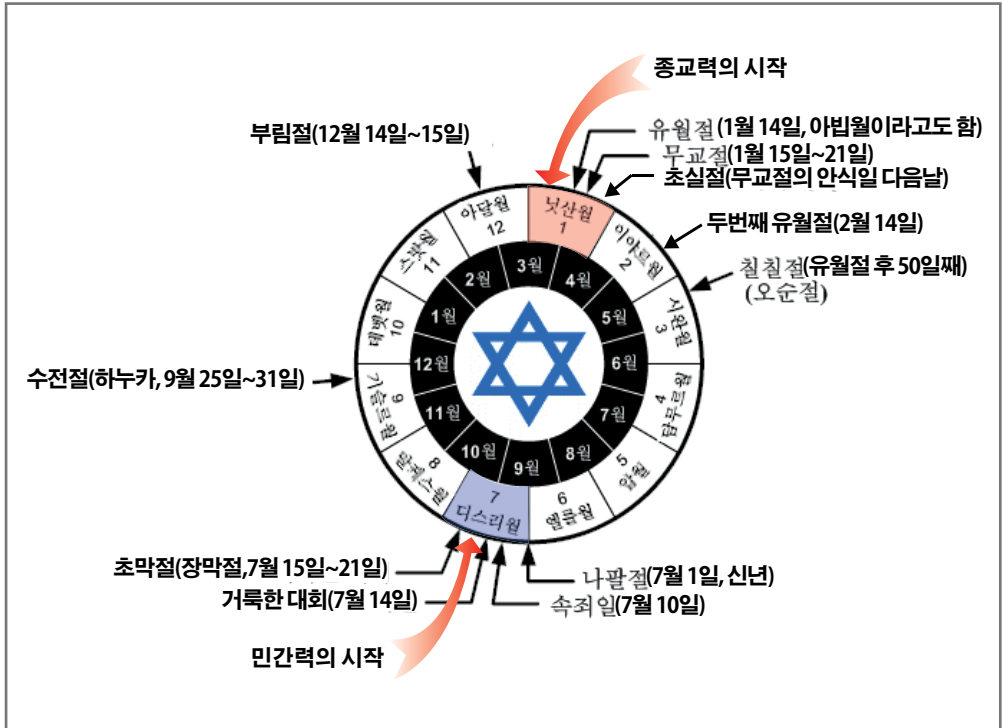
종려나무가 풍성한 도시이다. 요단강변에 위치한다.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함락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

7.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며 예수님의 탄생지이다. 예루살렘 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8. 헤브론: 유다지파의 중심지로서 조상의 무덤인 막벨라굴이 있다.
9. 단: 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이다.
10.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거처였다.
11. 세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한 곳이다. 여호수아때와 사사시대때 정치, 군사의 중심지였다. 므낫세 지파의 중심지이다.

제 6 장 이스라엘의 월력

- * 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하였다.
- * 민간력(농경과 목축 및 각종 일상사를 기준)과 종교력(출애굽을 기념하여 그 달을 신년으로 설정)을 사용하였다.
- * 각 달의 이름은 원래 가나안식 명칭이었으나 바벨론 포로 이후 바벨론식 명칭으로 개편되었다.
- * 현재 전해지는 가나안식 명칭은 아빍(1), 시브(2), 에다님(7), 불(8) 등 4달의 명칭만 남아 있다.
- * 유대력은 1년이 12개월로, 각 달은 평균 29.5일로 구분되어 홀수 달은 30일, 짝수달은 29일로 되어 있다. 따라서 1년은 약 354일로 구성된다.
- * 태양력에 비해 11일이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 3년마다 13번째 달을 윤달로 삼으며 네번째 윤달은 2년째 채워 넣는다. 그래서 (3년)-(3년)-(3년)-(2년) 식으로 윤달을 집어 넣다.
- * 히브리력과 태양력의 관계는 대략 히브리력의 한 달이 태양력의 보름에서 시작되어 다음 달 보름

에 끝나는 즉 태양력의 15일이 히브리력으로는
초하루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무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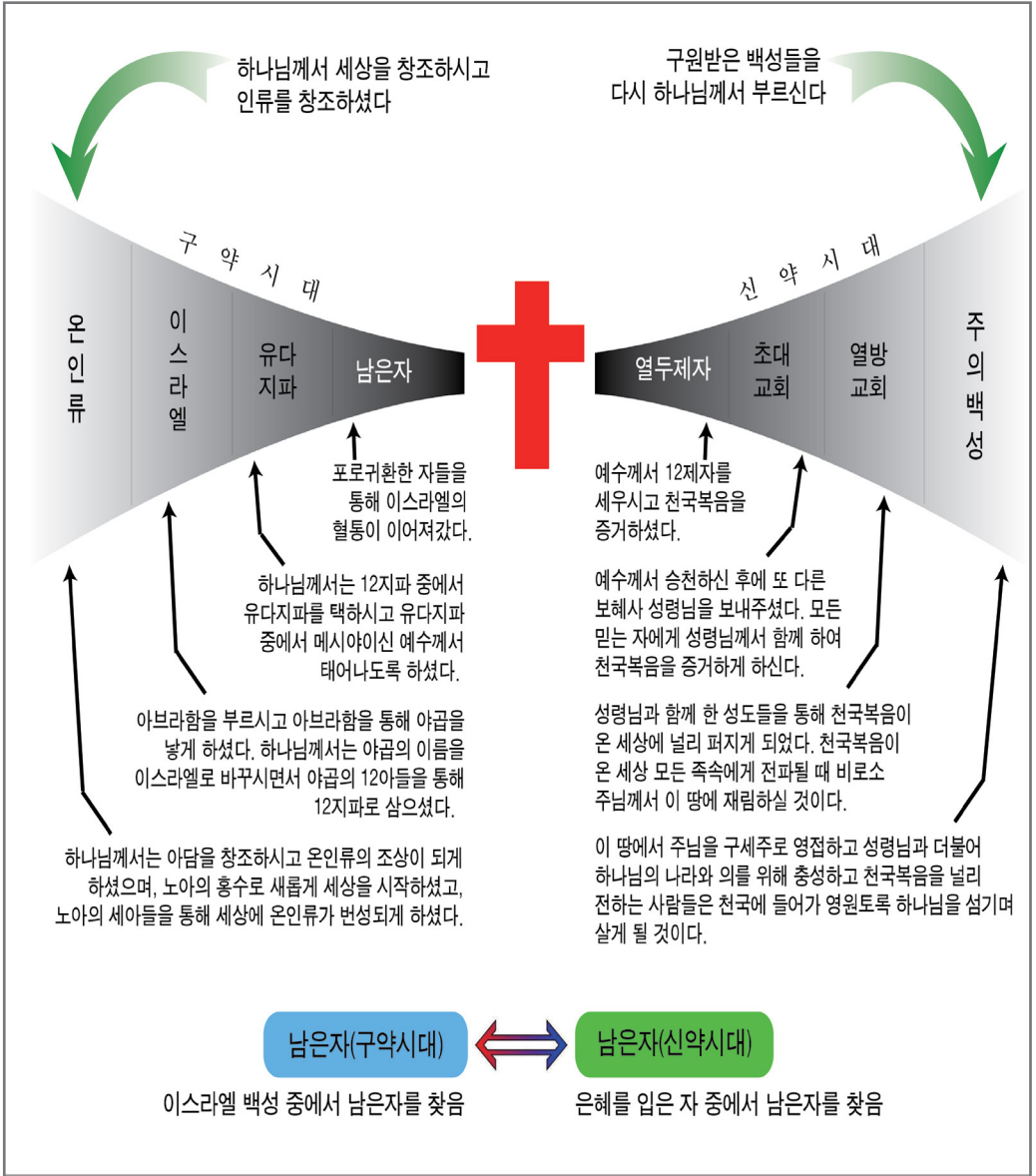


3 부

/

구속계획에 대한 이해

제 1 장 남은자의 이해



1. 구약시대의 남은자

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은자를 찾으신다.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선택받은 민족)으로 삼으셨다(레 26:12)
-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자를 세우셨다.

[레 26:12]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 남은자를 찾으시는 과정

- 1)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이 살게 하셨다
 - 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동산을 만드셨다(창 1장)
 - ②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 다스리게 하셨다(창 2장)
 - ③ 홍수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죽임을 당하였고, 노아로부터 다시금 인류가

시작되었다(창 6-9장).

- ④ 노아의 세 아들(셈, 함, 야벳)을 통해 70 족속이 형성되었다. 이 70족속은 온 세상인류를 의미한다(창 10장).

- 2)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셨다(창 12:1).

- 3)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세우셨다.

- ①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였다(창 49장).
- ② 사도요한은 하늘의 인맞은 지파를 언급하였다(계 7:4-8). 그런데 그곳에는 단 지파가 빠져있다.
- ③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흉패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진 보석들이 박혀있었다(출 28:21)
- ④ 천국의 거룩한 성에 있는 12진주문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 하지만 보석들 이름의 순서는 출

[창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계 7:4]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십 사만 사천이니 [계 7:5]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계 7:6]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계 7:7] 시므온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잇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계 7:8] 스불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라

[출 28:21]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 둘이라 매 보석에 열 두 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애굽기에 언급된 것과는 다르다(계 21:12).

4)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를 세우셨다.

- ① 야곱의 장남은 르우벤이었다(레아의 소생).
- ②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영적인 장남으로 삼으셨다(창 49:10).

5) 이방인을 통해 북이스라엘와 남이스라엘(유다왕국)이 멸망을 당하였다.

- ① 북왕국은 앓수르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다(BC722).
- ② 남왕국(유다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다(BC586).

6)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앓수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이후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 ① 북이스라엘이 앓수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수는 약 27,000명(남자만)

[계 21: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 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 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창 49:10]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정도였고 나머지는 이방인과 함께
거하게 되어 종교가 혼합되고 말았
다.

- ② 그래서 훗날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
아 사람들을 싫어하게 된 주된 요인
이 되었다.

7)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귀환할 수 있었다.

- ① 남유다는 바벨론 2차 침공때(여호야
긴왕 재임시) 많은 귀족과 군사들과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 ② 남유다는 바벨론 3차 침공때(시드
기야왕 재임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유대사람들을 학살하였
고 살아남은 자들을 끌고 갔다(대하
36:17).
- ③ 하지만 오직 유다지파는 다시 이스
라엘로 귀환하여 남은자가 되었다
(대하 36:22-23).
- ④ 유다땅은 70년간 황무지가 되었다
(대하 36:21).

[대하 36:17] 하나님이 갈
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저가 와서 그 성
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
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
발노옹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대하 36:22] 바사 왕 고
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
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대하 36:23]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
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
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
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
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찌
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
노라 하였더라

[대하 36:21] 이에 토지
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
림 같이 안식하여 칠십년
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
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 ⑤ 1차, 2차, 3차 포로때 귀환한 유다백성의 수는 모두 5만명 정도에 불과했다(느 7:66-67).

[느 7:66] 온 회중의 합계가 사만 이천 삼백 육십명이요 [느 7:67] 그 외에 노비가 칠천 삼백 삼십 칠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 사십 오명이요

2. 신약시대의 남은자

가. 은혜를 입은 자 중에서 남은자를 찾으신다.

- 1)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은자를 찾으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은혜를 입은 자 중에서 남은자를 찾으신다.
- 2)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자 중에서도 성도를 구분하여 남은자로 세우셨다.

나. 남은자를 찾으시는 과정

- 1) 이스라엘의 남은자 중에서 12제자를 세우셨다.
 - ① 12제자는 모두 유대인으로 구성되

었다(마 10:2-4).

- ② 대부분의 제자가 갈릴리 출신이었다(셀롯당원 시몬과 가롯인 유다 제외).

2)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였고 수많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행 8:1)

- 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온 제자들에게 임하셨다(행 2:2-3).
- ② 제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 ③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한 분노를 터트리기 시작했다. 결국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다(행 7장)
- ④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졌다. 이로 인해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기 시작했다(행 8:1).

[마 10:2] 열 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마 10:3]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마 10:4] 가나안인 시몬과 밋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행 8:1]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행 2: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행 2:3] 볼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행 8:1]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 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을 자녀 삼으셨다(갈 3:26)
- ②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이다(갈 4:6, 롬 8:15)
- ③ 원래 이방인은 돌감람나무였지만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젖붙임을 받고서 새생명을 얻게 되었다(롬 11:17).

4) 하나님의 자녀된 이방인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 모이게 하셨다.

- ①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엡 1:22)
- ②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모든 사역은 교회를 통해 행해져

[갈 3: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 4:6]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롬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롬 11:17] 또한 가지 열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엡 1:22] 또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야 한다.

- ③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온 성도는 몸을 구성하는 지체이다(고전 12:12)

[고전 12: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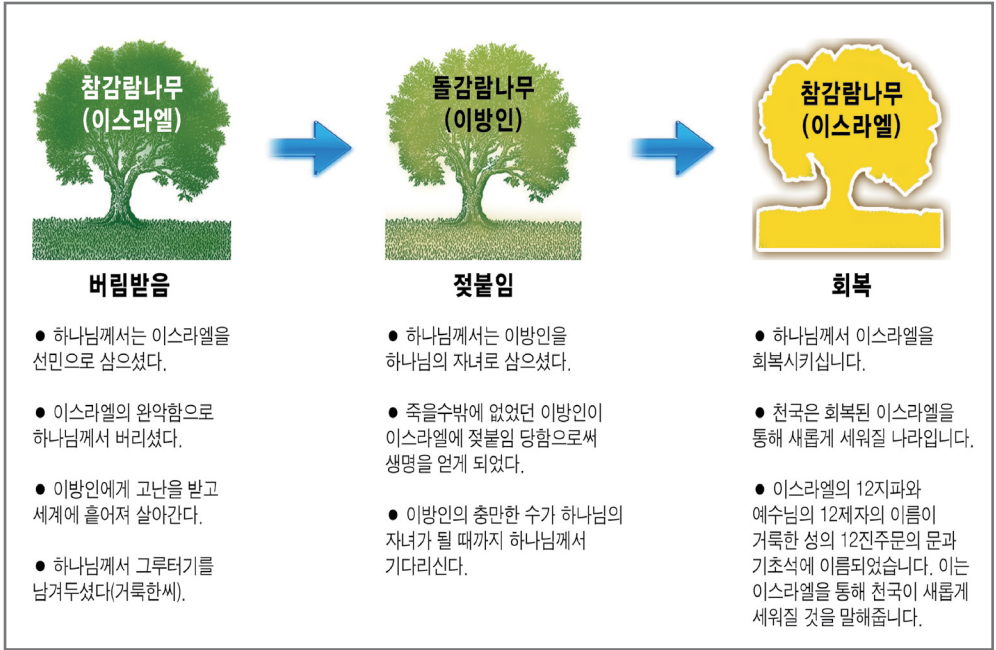
5)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만이 천국에 거하게 하셨다.

- ①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천국에 거하게 된다(계 21:3)
- ②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엡 2:8)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도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엡 2: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 2 장 감람나무의 이해



1. 참감람나무

가.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롬 11:24).

나. 참감람나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완악함

[롬 11:24] 네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찌뺨을 받고 본 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버림을 받게 되었다
(롬 11:25, 롬 11:21)

다. 참감람나무(이스라엘)는 때가 찰 때까지 이
방인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눅 21:24).

라. 하지만 그루터기가 남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
에 거룩한 씨를 남겨 두셨다(사 6:13).

2. 돌감람나무

가.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가리킨다(롬 11:25).

나. 참감람나무가 완악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다(롬 11:25).

다. 전 세계 인구 중 1/3 이상이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롬
11:17).

[롬 11:25] 형제들아 너희
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
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
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
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롬 11:21] 하나님이 원 가
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
리라

[눅 21:24]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
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
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
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
리라

[사 6:13]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오히려 남아 있을찌
라도 이것도 삼키운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
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롬 11:25] 형제들아 너희
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
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
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
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롬 11:17] 또한 가지 얼마
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
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
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
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
었은즉

3. 참감람나무의 회복

가. 이방인(돌감람나무)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참감람나무(이스라엘)가 다시 회복된다(롬 11:26-27).

나. 참감람나무가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롬 11:31)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거룩한 성의 12진주문 위에 적혀 있을 것이다(계 21:12).

라. 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회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천국을 다스릴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마. 그래서 12진주문의 기초석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적혀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다. 결과적으로 이스

[롬 11: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되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롬 11:27]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31]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 21: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 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 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엘을 통해 천국을 다스릴 것을 말해 준다(계 21:14, 눅 22:29-30, 마 19:28).

[계 21:14] 그 성에 성곽은 열 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 이 사도의 열 두 이름이 있더라

[마 19:28]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 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롬 11: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궁하지 말라 자궁 할찌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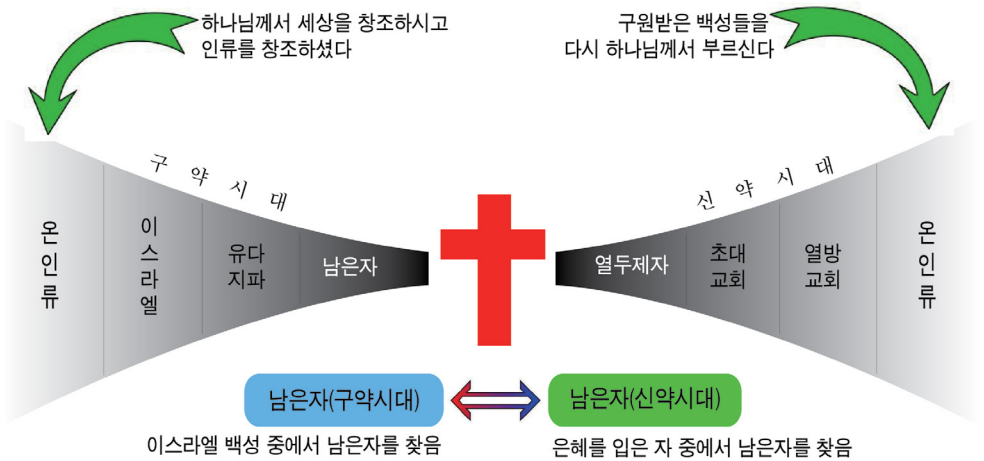
[계 2:26]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4.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와의 관계

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참감람나무가 돌감람나무를 보존하는 것이다(롬 11:18).

나. 돌감람나무(이방인)라 할지라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진다(계 2:26).

성경의 구조



[사 6:13]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오히려 남아 있을찌라도 이것도 삼키운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롬 11:4]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롬 11:5]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감람나무(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다

돌감람나무(이방인)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감람나무(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다시금 천국에서 선민으로 세워지게 될것이다

[롬 11:24]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롬 11: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계 21: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 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 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계 21:13]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계 21:14] 그 성에 성곽은 열 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 이 사도의 열 두 이름이 있더라

[눅 22:29]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눅 22:30]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계 2:26]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제 3 장 우리의 본향은?

1.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가.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된다(히 9:27).

- 1)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과 이별을 해야 함을 뜻한다.
- 2) 이 세상과 이별을 할 때 우리는 낙원과 음부에서 지내게 된다(눅 23:43, 눅 16:22-23).
 - 예수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낙원에 거한다. 천국이 임할 때에 낙원은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거하게 된다. 음부에 거하는 사람은 곧장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히 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눅 23: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눅 16: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눅 16:23]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3) 부활 때에 선악간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 모든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부활하게 된다(계 20:13).
- 생명책에 기록된대로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계 20:12).
- 선한 자는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지만 악한 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계 20:14-15).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나. 죽을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전 12:7).

[전 12:7]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1) 인간이 죽을 때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될 것이다. 육신은 땅에 거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2)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만 짐승

의 혼은 땅에 거하게 된다(전 3:21).

[전 3:21]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라

2. 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

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습 3:17, 히 12:9).

[습 3:17]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1)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듯이 영의 아버지가 계시다.

[히 12:9]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 육신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 거하시지만 영의 아버지는 하늘에 거하다.
-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창 1:26).

[창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1)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다(창 1:28).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롬 5:12).

3)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다(요 3:16).
-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를 사하여 주셨다(롬 5:17).
-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요 14:6, 히 10:20).

4) 오직 구원을 받아 천국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계 21:3-4).

[롬 5:12] 이따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5:17] 한 사람의 범 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3. 본향은 무엇인가?

가. 믿음의 선조들은 '본향'을 사모했다(히 11:16).

1) 여기서 사용되는 '본향'은 헬라어 <파트리스>로서 '고향' 또는 '본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신앙의 선조들이 사모하는 본향은 이 세상의 본향이 아닌 천국의 본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잠 8:22-31).

1) 우리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함께 즐거워했다.

2) 하나님께서 옴에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

나 고향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히 11:16]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잠 8:22]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잠 8:23]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잠 8:24]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미났으며 [잠 8:25]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잠 8:26]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잠 8:27]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잠 8:28]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잠 8:29]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잠 8:30]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잠 8:31]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

지 설명하셨다(욥 38:4-7).

- 우리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함께 즐거워했다.

3)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 것이다(렘 1:5).

마.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은 천사와 같다(마 22:30).

1) 천국에서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2) 천국은 이 세상의 삶과 다른 곳이다.

느니라

[욥 38: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 38:5]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니냐 [욥 38:6] 그 기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욥 38:7]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렘 1:5]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마 22:30]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4 부

/

천국에 대한 이해

제 1 장 천지의 변화과정



1. 첫번째 땅(판게아 Pangea) :

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땅은 모든 대륙이 붙어 있었다.

1) 대륙이 붙어있지 않았다면 전 세계에서
짐승이 방주로 나아올 수 없었을 것이다.

2)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은 일시에 전 세
계 곳곳으로부터 방주로 모여들었다(창
7:9).

[창 7:9] 하나님이 노아에
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나. 오늘날 형성된 지구의 땅의 모습을 보면 아프
리카 땅과 아메리카 땅의 모양이 이전에 붙어
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 원래 하나로 붙어 있었던 땅의 형태를 가
리켜 '판게아'라고 부른다.

2) 이 단어는 그리스어 <판가이아>에서 따
온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모든 땅'이라
는 의미이다.

3) 1915년 독일의 알프레트 베게너가 제안

한 이름으로 현재까지 불리워지는 단어가 되었다.

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땅은 이처럼 한 대륙으로 붙어 있었지만 노아의 대홍수 사건 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남으로 인해 오늘날과 같이 대륙이 나뉘어진 것이다.

1)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처음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셨던 것이다.

2) 이것이 바로 '두번째 땅'인 것이다.

라. 하나님께서 처음 땅에 홍수를 내리시어 새로운 땅으로 변화시키셨던 이유는 '죄악'이 세상에 만영했기 때문이다(창 6:5-7).

[창 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 6: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 6:7]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2. 두번째 땅(현재 땅):

가. 하지만 두번째 땅 역시 죄악으로 만영되고 말았다.

- 1) 오히려 첫번째 땅보다 훨씬 더럽혀지고 만 것이다.
- 2) 이렇듯 두번째 땅이 더럽혀진 까닭은 사탄의 활동이 더욱 거세졌기 때문이다.
- 3)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사탄은 더욱 강력하게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나. 이로 말미암아 부득불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 1) 첫번째 땅에 임했던 심판은 '물'이었으나 두번째 땅에 임할 심판은 '불'이 될 것이다.

2) 이미 첫번째 땅은 '물'로 심판을 받았고 두 번째 땅은 곧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히 10:27, 마 13:40, 벧후 3:6-7).

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세상의 종말은 '불'로 심판은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계 16:8).

3. 세번째 땅(복천년):

가. 이렇게 두번째 땅이 불로 심판을 받은 후에 세 번째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나. 세번째 땅은 '복천년'이 이뤄지는 땅이 될 것이다. 첫번째 땅과 두번째 땅은 사탄으로 더럽혀졌지만 세번째 땅은 깨끗함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계 20:1-3).

[히 10:27]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마 13: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벧후 3:6]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벧후 3: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계 16:8]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계 20: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계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계 20:3]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

[계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
하여

1) 주님의 재림하심에 의해 사탄이 완전히 진
멸당할 때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
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용을 잡
다(계 20:2).

2) 천사는 사탄을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
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
여 천 년이 차도록 가둬둘 것이다.

3) 이렇게 무저갱에 갇히게 된 사탄은 도저히
인간을 미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무저갱에서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 될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
지 못하게 될 것이다.

4) 사탄이 무저갱 속에 갇힐 때 사탄을 추종
했던 악한천사들도 함께 갇히게 될 것이
다. 이러한 악한천사는 하늘전쟁에서 사
탄의 편에 섰다가 사탄과 함께 이 땅에

떨어진 천사들이다. 이들은 이 땅에서 사탄을 도와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는 일을 행했던 자들이다(계 12:9).

[계 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 5) 이렇게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무저갱에 갇히게 됨으로 인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 성경은 "...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3절 중)라고 표현하고 있다.

[계 20:3]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

- 1) '만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다.

- 2)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나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나라'로 여기시기 때문이다(벧전 2:9).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 주님께서 의인들과 더불어 천년동안 이 땅을 다스리다(계 20:6).

[계 20: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돌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마. 복천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사 2:4]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1) 전쟁이 없을 것이다(사 2:4).

[겔 36:35] 사람이 이르기 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2) 지구는 다시 변화되어 에덴동산과 같이 될 것이다(겔 36:35).

[계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계 20:3]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3) 사탄과 그의 추종세력들은 무저갱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유혹할 수 없으므로 이 땅은 이웃과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할 것이다(계 20:2-3).

[사 65:23] 그들의 수고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 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4) 사람들은 복천년 기간동안 자녀를 갖게 될 것이다(사 65:23).

5) 사람들은 짐승과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사 65:25).

6) 사람들은 질병없이 나무처럼 오래 살 것이다(사 65:22).

7) 사람들은 집을 짓고 그곳에 거하며 농사를 지으며 풍족하게 먹고 살 것이다(사 65:21).

바. 복천년이 끝나고서 천국의 삶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 주님의 보좌 앞에 거하게 될 것이다.

1)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을 취할 것이며 강 주변의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를 취하게 될 것이다(계 22:2).

2) 성경은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

[사 65: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 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사 65:22]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사 65:21]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만국'이라는 표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나라'로 여긴다.

사. 사도요한은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이들은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한 자들이었다(계 20:4-6).

1)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4절 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살아서'라는 단어는 <에제산>인데 이는 육체적인 부활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이다.

2) 이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서 곧 장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포함하여 이미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

[계 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계 20: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계 20: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돌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을 가리킨다.

아. 이렇게 복천년이 시작될 때에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 1) 이러한 '첫째 부활'은 '둘째 부활'과는 다른 것이다.
- 2) 둘째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만 첫째 부활은 오직 합당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부활이다.
- 3)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요한이 여러 보좌들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본 것이다.
- 4) 실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좌정하여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주었던 약속이었다. 실제로 그 약속은 이뤄질 것이다 (눅 22:30).

- 5)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나라'가 되어 실제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미 다니엘은 모든 성도들이 얻게 될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단 7:22).

자. 복천년이 끝난 이후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잡시 풀려납니다(계 20:7).

- 1) 사탄이 풀려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다.
- 2)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저갱으로부터 풀어놓은 것은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믿

[눅 22:30]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단 7:22]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계 20:7] 천 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음을 시험키 위함이다

차. 사탄은 마지막으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한다. 성경은 '땅의 사방 백성'을 '곡과 마곡'이라고 말하고 있다(계 20:8).

[계 20:8]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려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1) 하지만 결국 사탄은 다시금 하나님에 의해 처참히 패하고 맙니다(계 20:9).

[계 20:9]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2) 결국 사탄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는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그곳에 거하게 된다(계 20:10).

[계 20:1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카. 그 이후에 둘째부활과 심판이 있다.

1)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죽은 자, 산 자 모두) 이 심판을 받는다(히 9:27).

[히 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에 거하겠지

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계 20:11-15).

4. 네번째 땅(천국):

가. 이러한 복천년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은 네번째 땅으로 다시금 변화될 것이다.

- 1) 하지만 네번째 땅은 세번째 땅과는 완전히 다른 땅이 될 것이다.
- 2) 새하늘과 새 땅에 사용된 '새'(new)라는 단어는 <카이노스>인데 이 단어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한다(고후 5:17).
- 3) 세번째 땅은 첫번째 땅과 두번째 땅과 연결되는 변화 속에 세워진 새로운 땅이지만 네번째 땅은 전혀 다른 땅이 될 것이다

[계 20: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고후 5:17]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 '새로운'이라는 단어 역시 <카이노스>가 사용되었다.

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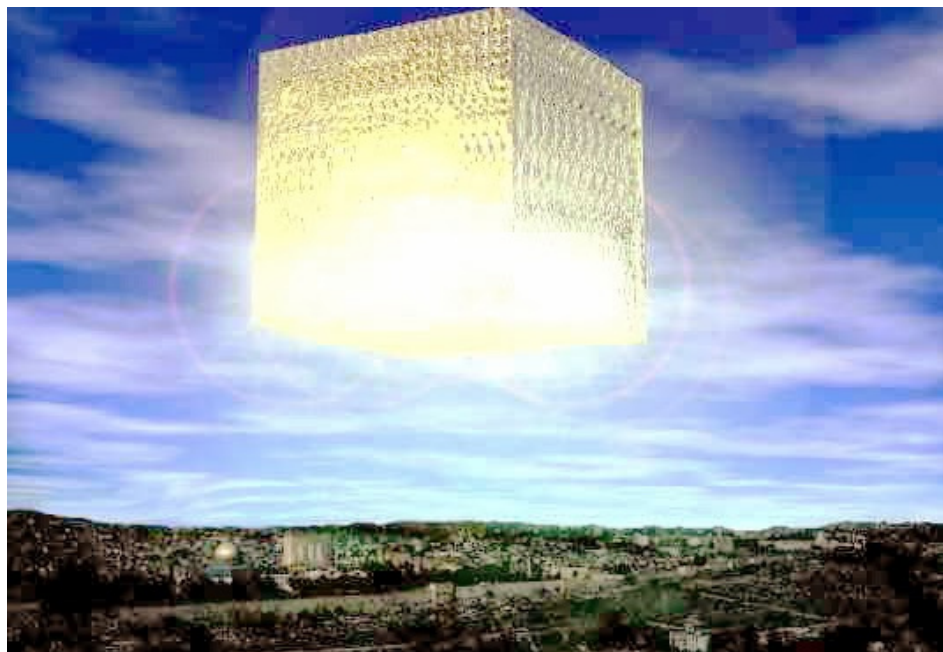
- 4) 이전의 있었던 땅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땅인 것이다.

나. 사도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 1) 그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으며 '바다'도 없어졌음을 보았다.
- 2) 사도요한이 바라본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는 땅과 바다가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에는 바다가 없다(계 21:1).

[계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제 2 장 거룩한 성



1. 거룩한 성은 무엇인가?

가. 사도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거룩한 성'
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계 21:1-2).

[계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 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 그 '거룩한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였다. 이는 '거룩한 성'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은 '새 하늘과 새 땅'과는 다른 것이다.

3)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다. 하지만 '거룩한 성'은 천국 위에 거하는 또 다른 장소이다.

4) 이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며 그곳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계 22:1).

[계 22:1]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맞서서
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나. 거룩한 성은 '예비한 신부'이다.

1) 왜 사도요한은 거룩한 성을 가리켜 '예비한 신부'같다고 하였을까요?(계 21:2).

[계 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 그것은 '거룩한 성'에는 오직 주님의 신부 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신부 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계 21:24).

[계 21: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 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도 모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믿음만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한신부가 되어야 한다.

- 거룩한 성에는 속되거나 가증하거나 거짓말 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계 21:27). 하지만 천국에는 속되거나 가증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만으로 들어갈 수 있다.

[계 21: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다. 천국에 거하는 것과 거룩한 성에 거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다.

- 1) 그 이유는 거룩한 성은 하나님과 주님이 거하고 계신 곳이기 때문이다(계 21:22).
- 2) 거룩한 성에는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고 있다. 이는 천국과 다른 것이다(계 22:1-2)

[계 21:22]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이심이라

[계 22:1]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2. 거룩한 성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 사도요한이 보았던 '거룩한 성'은 이미 21장 2절에서 언급되었다. 그런데 10절에 다시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계 21:10).

[계 21:10]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 1)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었던 일곱 천사 중 한 천사가 사도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거룩한 성을 보여

주었다.

- 2) 이처럼 천사가 사도요한에게 재차 '거룩한 성'을 보여준 것은 그만큼 거룩한 성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 거룩한 성에 대한 매우 독특한 부분이 있다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다.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온다는 것을 뜻한다.

- 1) 그래서 사도요한은 거룩한 성을 표현할 때 거듭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 2) 거룩한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거룩한 성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 3) 또한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천국 위에 거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를 통해 거룩한 성은 천국과 구별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다.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어찌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지 그 성의 빛이 마치 귀한 보석처럼 빛났으며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계 21:11).

[계 21: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라. 거룩한 성에는 열두 문이 있는데 열두 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다(계 21:12).

[계 21: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1) 열두 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은 합당치 않는 자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2) 이것은 마치 '그룹과 화염검'이 사람들로 하여금 에덴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 막는 것과 같은 것이다(창 3:24).

[창 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마. 열두 문들 위에는 이름이 써져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계 21:12-13).

- 1) 거룩한 성의 문들은 각 면마다 3개씩 놓여져 있었다.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남편에 3개, 북편에 3개씩 도합 12개의 문이 놓여져 있었다.
- 2) 12개의 문은 거룩한 신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12개의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다.

바. 그 성에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었는데 그 위에 주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있었다(계 21:14).

[계 21: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계 21:13]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계 21:14] 그 성에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이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 1) '성곽'이라는 것은 성을 둘러싸고 있는 벽을 의미한다.
- 2) 성곽이 튼튼해야 성이 전체적으로 튼튼해 집니다. 성벽을 튼튼하게 쌓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기초석인데 그 기초석에는 주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열두제자의 관계

- 1) 열두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혈통을 물려받은 유대인만 뜻한 것이 아닙니다.
- 2)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께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갈 3:29).

[갈 3:29]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 3) 열두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확실히 지키는 자이다(계 14:12).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지키는 자만이 거룩한 성의 성곽을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 거룩한 성은 금갈대로 척량되었다(계 21:15).

[계 21:15]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척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 1) 그는 거룩한 성의 전체를 척량하면서 그 문들과 성벽을 모두 척량하였다.
- 2) '갈대'는 척량할 때 사용되는 지팡이와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금 갈대'라고 하였으니 천사의 척량이 매우 정확함을 뜻한다. 한치의 속임도 없고 거짓도 없는 매우 정확한 척량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 3) 이렇듯 천사가 금 갈대를 가지고 거룩한 성을 척량하는 것은 오직 거룩한 신부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음을 뜻한다. 만일 거룩하지 못한 신부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천사에 의해 제지를 당하게 될 것이다.
- 4) 이는 마치 언약궤 위의 속죄소에 놓여져 있는 두 그룹에 의해 합당치 못한 자들이 결코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자. 거룩한 성의 외형적인 모습

- 1) 그 천사가 금 갈대를 가지고 거룩한 성을 척량하였더니 가로가 12,000 스타디온이고 세로가 12,000 스타디온이며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었다. 이는 거룩한 성의 모양이 네모 반듯하여 장광고가 모두 같았다(계 21:16).

[계 21: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 2) 거룩한 성이 이처럼 네모 반듯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뜻하는데 이는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한 신부만을 받아 드리겠다는 의미이다.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거나 우상을 섬기는 신부는 절대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음을 뜻한다.
- 3) 또한 거룩한 성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였는데 이 길이는 대략 2,400km 정도이다. 이는 한 스타디온의 길이가 185m 이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상당히 넓은 거리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이곳에 모여 있다고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 될 것이다.
- 4) 그러면 왜 성경은 거룩한 성의 공간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했을까요?
- 5) 그것은 12,00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다. 12라는 숫자는

3이라는 천국의 숫자와 4라는 땅의 숫자를 곱한 수이다. 3과 4를 곱하면 12가 된다. 3과 4를 더하여서 만들어지는 숫자가 7이라면 3과 4를 곱하여서 만들어진 숫자가 12이다. 7은 완전수이지만 12는 천국수이다.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 12,00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가장 큰 숫자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에서는 1,000이라는 숫자를 가장 큰 숫자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 6) 또한 천사는 성곽의 두께를 척량했는데 그 두께가 144 규빗이나 되었다. 이는 성벽의 두께가 70m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계 21:17).

* 상당히 두꺼운 성벽이라 할지라도 70미터나 되는 성벽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성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성곽의 두께가 144규빗이라는 숫자 역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

[계 21:17] 그 성곽을 척량하매 일백사십사 규빗이니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

을 맞은 144,000의 수가 나옵니다.
이들 숫자와 성벽의 두께인 144규빗
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 사도요한이 들었던 인 맞은 자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44,000이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7장에 언급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보다 정확한 의미는 144,000이라는 숫자는 천국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는 천국에 거할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모두 포함된 것이다.

7) 144,0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를 곱한 수이다.

* 3과 4를 곱하면 12가 된다. 이는 3과 4

를 더한 수와는 비교가 될 수 있는데
3과 4를 더해 만들어진 7의 숫자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라면 3과 4를 곱해서 만들어진 12라는 숫자는 '천국'을 가리키는 숫자가 되는 것이다.

- * 이렇게 만들어진 12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곱하게 될 때 144란 숫자가 나오게 된다($12 \times 12 = 144$).
- * 여기에다가 '많다'란 의미의 숫자인 1000을 곱하게 되니 144,0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는 1000이라는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만(50,000)'이라는 숫자가 가장 '많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1000'이 가장 많은 수에 해당된다.
- * 따라서 144,000이라는 수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숫자인 것이다.

8) 따라서 성벽의 두께가 144라는 것은 천국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더군다나 거룩한 성은 오직 거룩한 신부만이 거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욱 144라는 숫자는 천국의 의미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9) 거룩한 성의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다. 그 성곽에는 12개의 기초석이 놓여져 있는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마노, 홍보석, 화옥, 녹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기초석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에봇에 걸쳐진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는 것과 같았다(출 39:8-14).

10)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어있는 보석들은 모두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룩한 성의 성곽의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 39:8] 그가 또 흉패를 공교히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 실로 하였으니 [출 39:9] 그것의 장이 한 뼘,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출 39:10]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출 39:11]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출 39:12]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출 39:13]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테에 물렸으니 [출 39:14]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인을 새김 같이 그 열두 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12지파의 이름과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은 거룩한 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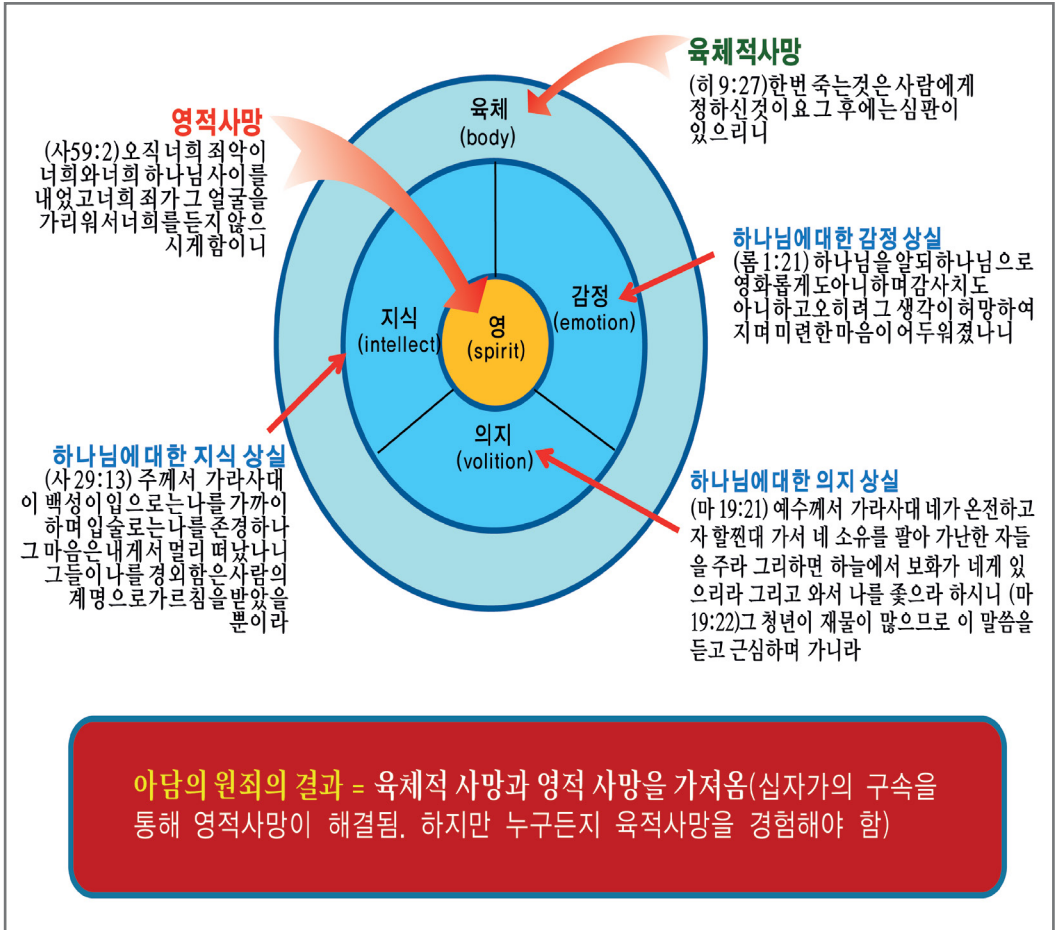


5 부

/

주님의 구속에 대한 이해

제 1 장 사망과 생명



1. 아담의 타락

가. 영적사망

- 1)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사 59:2).
- 2)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에덴동산에서 함께 동행하며 살았다(창 3:8-9)
- 3)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며 사는 것이 영적사망이다.
- 4)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김을 당하였다(창 3:24). 이는 하나님과의 영적관계가 끊어진 것을 뜻한다.

나. 육적사망

- 1)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은 불사불멸의 상

[사 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창 3:8]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지라 [창 3: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창 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태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 나무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게하셨다.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창 2:16-17)

[창 2: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창 2:17]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2)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이 땅에 육적사망이 들어왔다(히 9:27).

[히 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3) 아담은 더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을 수 없었다(창 3:24)

[창 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다. 혼적으로 하나님 상실

1) 하나님에 대한 지식 상실: 사람들의 세워 놓은 전통에 의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실되고 있다 (사 29:13)

[사 29:13]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2) 하나님에 대한 감정 상실: 세상을 좇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롬 1:21, 요일 2:16)

- 3) 하나님에 대한 의지 상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고자 헌신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마 19:21-22)

2. 예수님의 구속

가. 원죄해방: 예수께서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롬 5:1).

나. 죄사함: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 받게 되었다. 누구든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요일 1:9).

다. 마귀대적: 예수께서 십자가 구속을 통해 마귀

[롬 1: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마 19:2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 쥔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마 19: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를 멸하셨음으로 우리도 마귀를 대적하고 파
쇄할 수 있다(요일 3:8).

라. 구원받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
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롬
10:9)

마. 부유해짐: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써 부유하
신 분이신데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 일부
러 가난함을 겪으셨다(고후 8:9).

바. 상처치유: 예수께서 모든 마음의 상처로 고통
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저들의 상
처를 치유하신다(마 11:28).

사. 문제해결: 예수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셨기때
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도우셔서 고난에
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다(히 2:18)

아. 질병치유: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
로 인해 모든 죄를 짊어지셨으므로 우리가 모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고후 8: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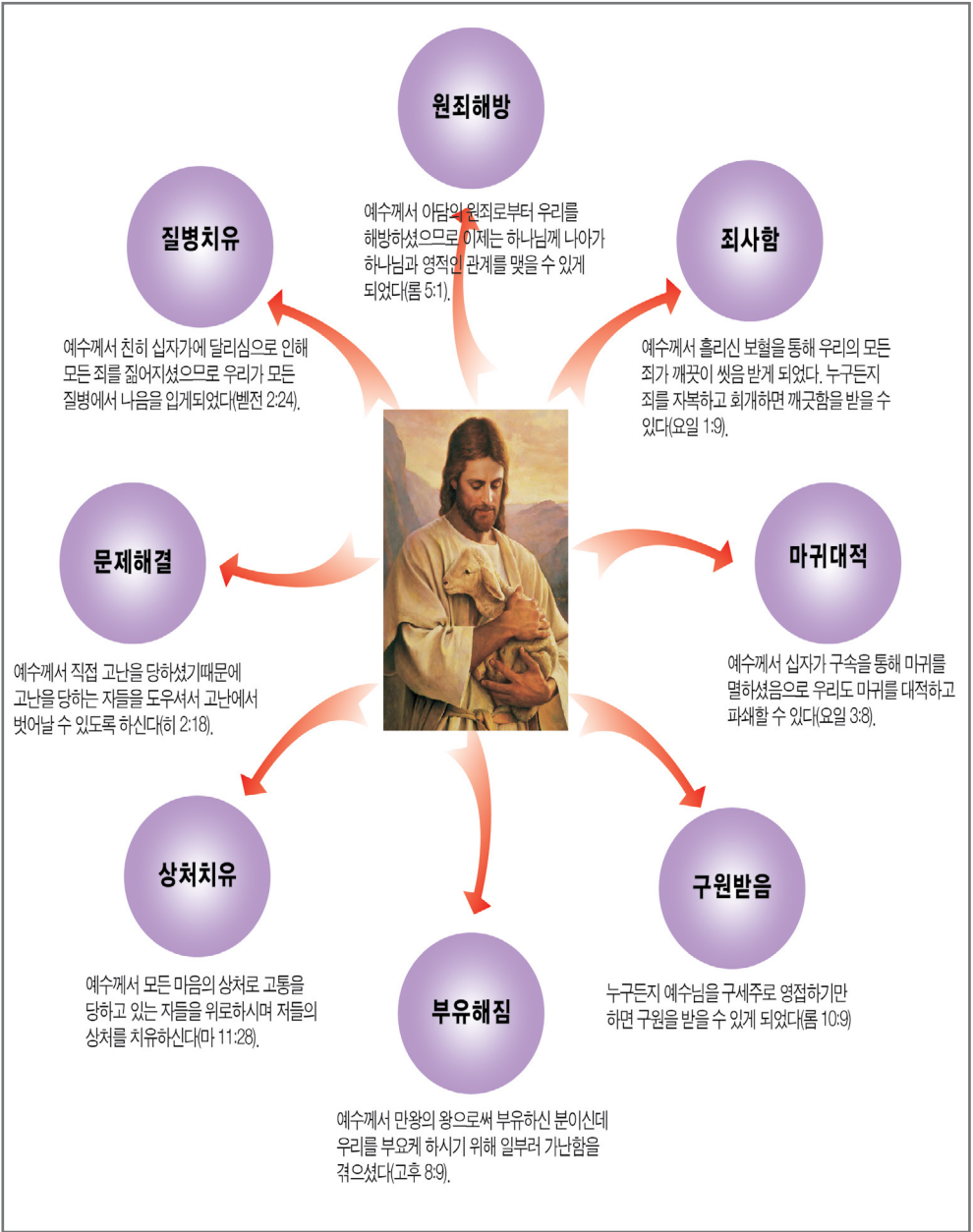
[마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히 2:18]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벧전 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었다(벧전 2:24).

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제 2 장 천국의 두 요소

1. 믿음

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다.

나. 믿음은 천국의 모든 것이다.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막 11:23-24). 이는 믿음이 천국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믿음' 자체에 강력한 권능이 있는 것이다.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다(롬 10:9).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행위는 상급을 위한 것이지 구원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당하지 않다(요 3:16).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

[막 11: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막 11: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망 당하고 말 것이다.

2. 행위

가. 천국에는 여러 상급이 있다

- 1)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으며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고전 15:40)
- 2) 하늘의 영광이 서로 달라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으며 별의 영광이 있다 (고전 15:41)
- 3)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이는 천국에는 여러 세분화된 등급의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4) 이 땅에서 우리의 헌신과 믿음에 따라 상급이 달라집니다

[고전 15:40]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고전 15:41]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나. 천국엔 거할 곳이 많다(요 14:2-3).

- 1) 우리가 거할 처소가 모두 예비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 2)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보다 천국에서 누리는 축복이 훨씬 큰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이다.

다. 천국에서 입는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에 따라 달라집니다(계 19:8).

- 1) 세마포는 주님께서 직접 입혀주다(사 61:10)
- 2) 세마포의 생김새와 색깔과 장식품과 밝기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상태를 알 수 있다.

[요 14: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 14: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계 19:8]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사 61:10]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은이라

- 3) 세마포가 밝을수록 영적상태가 좋은 것이다.
- 4) 세마포가 화려할수록 영적상태가 좋은 것이다.
- 5) 세마포에 장식품이 많을수록 영적상태가 좋은 것이다.

라. 이 땅에서 옳은 행실은 천국에서 귀한 상급을 받게 된다.

- 1) 그래서 믿는 자에게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약 2:26).
- 2)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 옳은 행실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약 2: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천국

믿음

- ▶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 ▶ 믿음은 천국의 모든 것입니다.
- ▶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롬 10:9)
- ▶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습니다(요 3:16)

행위

- ▶ 천국은 여러 상급이 있습니다(고전 15:40)
- ▶ 천국은 거할 곳이 많습니다(요 14:2)
- ▶ 천국에서 입는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에 따라 다릅니다(계 19:8)
- ▶ 이 땅에서 옳은 행실은 천국에서 귀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약 2:26)





6 부

/

영적 흐름에 대한 이해

제 1 장 하나님에 대한 이해

1. 삼위일체 하나님:

신성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시다. 이 세 위격은 한 하나님으로서, 본질상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다.

즉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역사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세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다. 또 이 세 위격은 똑같이 영원하신 존재이다.

가. 성부 하나님:

- 1) 하나님아버지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되신다.
- 2) 모든 것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아버지께

달려 있다(고전 12:6).

- 3) 하나님아버지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허용되는 것이 없다.
- 4) 성자하나님께서서는 오직 성부하나님의 말씀과 보여주신 것을 통해 사역을 하셨습니다(요 5:39).

[고전 12:6]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요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나. 성자 하나님:

- 1)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성자하나님이시다(요 1:1-3).
- 2) 성자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하며 세상의 구세주이시다(요 3:16).
- 3) 성자하나님께서 모든 권능을 허락하시고 모든 직임을 부여하신다(고전 12:5)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전 12:5]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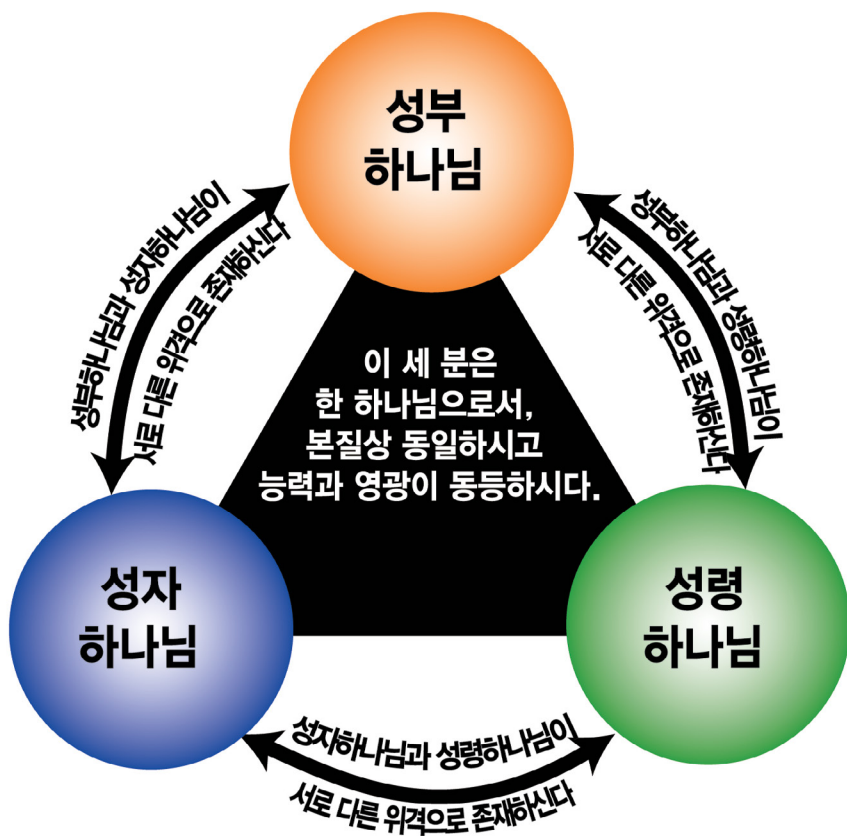
다. 성령 하나님:

- 1) 성령님을 말하며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
- 2)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전 3:16).
- 3)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신다(요 14:26).
- 4) 모든 은사가 드러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고전 12:4).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고전 12:4]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제 2 장 마귀에 대한 이해

1. 마귀의 정체

가.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은 사탄이며, 용이며, 옛 뱀으로 불리워진다(창 3:1, 계 12:9).

나. 마귀는 천국전쟁에서 패배하여 이 땅에 떨어졌으며 그를 추종하는 1/3 영들과 함께 이 땅에 쫓겨났다(계 12:7-8).

다. 예수께서도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했다(눅 10:18).

라. 마귀의 이름은 '루시퍼'이다. 이는 '계명성'에 대한 라틴어 표기이다(사 14:12).

[창 3:1]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계 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자라

[눅 10:18]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 14: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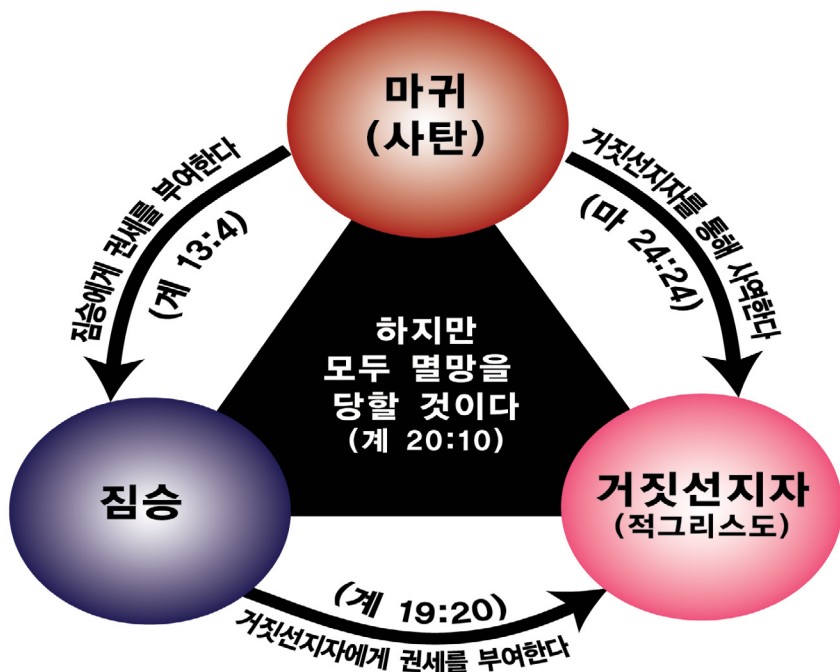
1)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다(계 22:16).

2) 마귀의 단순한 '새벽별(Morning Star)'
라는 이름과는 달리 예수님은 '광명한 새
벽별'이다.

[계 22:16] 나 예수는 교회
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
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
시더라

마. 마귀는 교만때문에 하늘에서 쫓김을 당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사 14:13-14).

[사 14: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
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
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복곡 집회의 산 위에 좌정
하리라 [사 14:14] 가장 높
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
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2. 마귀의 삼위일체

가. 마귀

- 1)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며 이름은 '루시퍼'이다.
- 2)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웠으며 패배하여 이 땅으로 쫓김을 당하였다(계 12:7-8).
- 3) 이 땅에 내려온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 4)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는 '죄'이다.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사 59:2).
- 5) 가장 먼저 마귀는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였으며 모든 인간은 마귀의 유혹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지라

[사 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다.

- 6)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마 4장).
- 7) 마귀는 세가지 시험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다. 그 세가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요일 2:16).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나. 짐승

- 1) 마귀는 짐승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관하는 자는 짐승이다(계 13:2)
- 2)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부여하셨듯이, 마귀가 짐승에게 권한을 부여하였다(계 13:4)

[계 13: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 13: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 3) 짐승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기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은 고난을 받게 된다(계 13:16)

- 4) 짐승은 거짓선지자를 적그리스도 삼아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계 13:16]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다. 거짓 선지자

- 1) 거짓 선지자는 짐승에 의해 권세를 부여 받았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듯이 짐승을 통해 거짓 선지자는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다.
- 2)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이다.

제 3 장 영적예배에 대한 이해

1. 성막을 통한 영적예배

성막구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성막은 정결과 거룩, 그리고 집중을 가르쳐 줍니다(히 8:5)

가. 성막문: 주님의 보혈을 통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다(요 14:6)

나. 성막뜰: 정결과정이 있다.

- 1) 번제단: 하나님께 헌신하는 곳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할 것을 서약하는 곳이다. 모든 제물은 번제단에 태워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기 전에 번제소에서 죽임을 당하여야
만 했다.(레 4:29)

[레 4:29]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 2) 물두멍: 날마다 지은 자범죄를 속죄하는
곳이며, 정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한
다(출 30:19-20)

[출 30:19]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출 30:20]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 할찌니라

다. 성소: 거룩과정이 있다.

- 1) 진설병:
- 생명의 양식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한다.
 - 구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 선포한 것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바라며 감사를 돌린다.
- 2) 정금등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초청하여
빛되신 주님께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
한다.

3) 분향단:

-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
(계 5:8, 계 8:3-4)
- 보다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한다.

[계 5:8]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 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 8: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계 8: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다. 지성소: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곳이다.

1) 속죄소:

- 주님의 보혈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됐다(마 27:51, 히 10:19-20)
- 속죄소를 통과하여 언약궤로 들어가면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
-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속죄소에 놓여져 있는 두 그룹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렇기때문에 보혈이 중요한 것

[마 27: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다(출 25:20)

[출 25:20] 그룹들은 그 날
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
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2) 언약궤:

-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체험한다
- 언약궤에는 세가지 성물이 들어있다. 그 세가지 성물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돌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소망)
 - 싹난 지팡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믿음)
 - 만나 항아리: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사랑)

2. 천국에서의 예배:

가. 천국의 장막은 지상의 성막과 같은 것이다.

언약계

언약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성물이다. 정결과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체험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게 된다.

속죄소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릴 때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보호하심으로 악의 세력이 침입하지 못하게 되며, 하나님의 깊은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설병

생명의 양식되시는 주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를 올린다.

번제단

하나님께 헌신하는 곳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을 서약한다.

분향단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이다.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이 활성화되며 하나님의 깊은 영광체험을 하게 된다.

정금등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초청하며 빛되신 주님께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다.

물두멍

날마다 지은 자범죄를 속죄하는 곳이며, 정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한다.

성막틀

정결과정 (번제단, 물두멍)

성소

거룩과정 (진설병, 정금등대, 분향단)

지성소

집중과정 (속죄소, 언약계)

성막문

생명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

나. 천국에서 장막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히 9:11, 계 15:5, 계 11:19, 계 21:3).

3. 마귀가 경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히 9:11]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계 15:5]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계 11:19] 이에 하늘에 있

가. 육적인 방해

- 1) 육적인 방해는 분주함이다.
- 2)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든다.(눅 10:40, 눅 10:41~42).
- 3)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바쁜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나. 혼적인 방해

- 1) 혼적인 방해는 조급함이다.
- 2)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한다.
- 3) 조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편

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눅 10:40]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눅 10:41]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눅 10:42]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안함이 없어 안절부절하게 된다. (신 28:65)

- 4) 조급한 상태로는 하나님과 일대일의 교제를 나누기가 힘들어진다. 이것 또한 마귀의 방해이다.

다. 영적인 방해

- 1) 영적인 방해는 산만함이다.
- 2)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산만한 생각들을 가져다 준다.
- 3) 산만한 생각들은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 4)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으며 하나님의 깊은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다.

[신 28:65] 그의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레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네페쉬)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제 4 장 반차에 대한 이해

1. 아론의 반차

가. 아론의 반차는 이 세상의 제사(예배)를 담당하도록 준비된 것이다(히 9:1)

[히 9:1]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천국의 장막을 본 따 세상의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히 8:5)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다. 모세는 아론을 세워 성막의 예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출 40:15)

[출 40:15]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라. 이 땅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통해 거룩함을 얻었다(히 7:27)

[히 7:27]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마. 이 땅의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성막의 예법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

2. 멜기세덱 반차

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십일조를 받
았으며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살렘왕이었다
(히 7:2-3).

나. 멜기세덱의 반차는 천국의 제사(예배)를 담
당하도록 준비된 것이다(히 7:11)

다. 천국에서는 하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계 21:3)

- 1) 천국의 <장막>과 이 땅의 <성막>은 같은
뜻을 가진 단어이다.
- 2) 구약의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쉬칸'이며
하늘의 '장막'은 헬라어로 '스케네'이다.

라. 예수께서 친히 멜기세덱 반차를 좇아 대제사
장이 되셨다(히 6:20)

마.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제사는 주님의 보혈에
의해 거룩해집니다(히 7:27)

[히 7:2] 아브라함이 일체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
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
요[히 7:3] 아비도 없고 어
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
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
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
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 7:11]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
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
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
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
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
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
느냐

[계 21:3] 내가 들으니 보
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
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
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
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히 6:20] 그리로 앞서 가
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
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
여 들어 가셨느니라

[히 7:27] 저가 저 대제사
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
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
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
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
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새롭고도 산 길을 만드셨다
(히 10:20)

사. 이 땅에서의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에 따른 혈통에 의한 제사장 직분을 물려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멸기세덱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벧전 2:9)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 ▶ 아론의 반차는 세상의 제사를 담당하도록 준비된 것입니다(히 9:1)
- ▶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천국의 성막을 본 따 세상의 장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히 8:5)
 - ▶ 모세는 아론을 세워 성막의 예법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출 40:15)
 - ▶ 이 땅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통해 거룩함을 얻었습니다(히 7:11)
- ▶ 이 땅의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성막의 예법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벧전 2:9)

- ▶ 멜기세덱의 반차는 천국의 제사를 담당하도록 준비된 것입니다(히 7:11)
- ▶ 천국에서는 하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계 21:3) - 천국의 <장막>과 이 땅의 <성막>은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 ▶ 예수께서 친히 멜기세덱 반차를 좇아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히 6:20)
- ▶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제사는 주님의 보혈에 의해 거룩해집니다(히 7:11)
- ▶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새롭고도 산 길을 만드셨습니다(히 10:20)
- ▶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벧전 2:9)





7 부

/

주님의 보혈에 대한 이해

제 1 장 시대에 따른 보혈 이해



1. 아담의 가죽 옷

가.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

1) 아담과 이브는 원래 옷을 입지 않았다.

2)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저들은 옷을 입지 않았어도 부끄러워하
지 않았다(창 2:25).

[창 2:25] 아담과 그의 아
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
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라

3) 하지만 저들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 죄를
지었을 때부터 옷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4) 그래서 그들은 나무 뒤로 숨어지냈다(창
3:9-10).

[창 3:9]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
냐 [창 3:10]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
려워하여 숨었나이다

5) 하나님은 벌거벗어 부끄러워하는 저들을
위해 가죽옷을 입히셨다(3:21).

[창 3:21]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나.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만 했다.

다. 가죽옷은 주님의 보혈을 상징한다.

- 1)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입혀주
기 위해 짐승을 잡으신 것은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의 원형이다.
- 2) 짐승을 잡아 죽이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
신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
음을 예표하는 것이다(롬 3:25).

[롬 3:25] 이 예수를 하나
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
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
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
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 유월절 어린양

가. 애굽에 내린 열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 양의 피를 발랐다.

- 1) 애굽에 내린 재앙의 마지막은 모든 첫번
째 태어난 것의 죽음이었다(출 12:12).
- 2) 하나님은 장자의 죽임을 면키 위해서 양
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도록
명하셨다(출 12:21-22).

[출 12:12] 내가 그 밤에 애
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
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
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
는 여호와라

[출 12:21] 모세가 이스라
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
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
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
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
으로 잡고 [출 12:22] 우슬
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
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
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
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나.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집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1)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육축과 사람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는 저들이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다(출 12:29-30).

2)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출 12:23).

다. 이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재앙에서 구원 받는 것을 상징한다.

1)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내린 죽음과 똑 같은 것이다.

2) 이 세상 그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게 된다.

[출 12:29]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출 12:30]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출 12:23]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 3)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시켜 주다.
- 4) 만일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믿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롬 10:9).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3. 짐승의 피흘람:

가. 성막의 번제소에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였다.

- 1)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하시면서 그곳에서 속죄를 위한 제물을 바치도록 명하셨다.
- 2) 성막의 번제소에서는 매일같이 수많은 짐승이 제사를 위해 죽임을 당하였다(레 4:29).

[레 4:29]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나. 짐승의 흘린 피는 곧 주님의 보혈을 상징한다.

- 1)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 짐승들이 성막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
- 2)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 짐승들의 죽임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의 속죄를 위해 예수님의 죽임이 필요했다(히 9:11-12).

[히 9:11]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4. 십자가 보혈:

가. 주님의 보혈은 새롭고도 산 길을 열어주셨다.

- 1) 하나님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기란 매우 힘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 2)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아버지께로 나아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

- 3)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새롭고도
산 길이 만들어졌다(히 10:20).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
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
라

나. 주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둘로 찢으셨다.

- 1)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짐승
이 둘로 갈라진 것과 같은 것이다.
- 2)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마치
짐승이 쪼개짐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
었다.
- 3)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전의 휘
장이 둘로 찢어졌다(마 27:51).
- 4)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것은 누
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됨
을 의미한다.

[마 27:51] 이에 성소 휘장
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
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
하며 바위가 터지고

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 1)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다(요 14:6).
- 2)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
해서만 가능하다.
- 3) 주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둘로 찢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
게 된 것이다.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
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가 없느니라

제 2 장 보혈의 능력

1. 생명의 능력이 있다.

가. 주님의 보혈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해 줍니다.

1) 유월절 어린양의 피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도록 보장해 주었다(출 12:23).

2)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모든 죄를 속해 줍니다(레 17:11).

나. 주님의 보혈은 모든 영적인 죽임을 막아줍니다.

1)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

[출 12:23]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려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 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하는 자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 2) 주님의 보혈은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칩니다.
- 3) 영적인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육적인 생명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

2. 정결하게 한다.

가.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에는 정결함이 있게 된다

- 1) 문둥병자는 제사장이 산 새의 피를 뿌림으로 정결해졌다(레 14:6-7).
- 2) 성막의 성물에 피가 뿌려졌다. 이는 성막을 정결케 하기 위함이었다(히 9:22).

[레 14:6]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레 14:7]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찌며

[히 9:22]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 3) 심지어 지성소 안의 언약궤와 속죄소에도
피가 뿌려졌다(레 16:14-15).

나. 주님의 보혈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한다(히 9:13-14).

- 1) 악한 세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며 양심을 죽게 만듭니다.
- 2) 하지만 주님의 보혈은 죽은 양심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해 줍니다.
- 3) 이처럼 양심이 다시금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된다.

다. 성막에서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있었다.

- 1)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우리를 정
결케 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레 16:14]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레 16:15]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히 9: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히 9: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한다(히 9:13-14).

2) 하나님께서는 깨끗한제사(정결한 제사, 거룩한 제사, 산 제사)를 좋아하다(사 1:11-12, 롬 12:1).

3) 정결의식에 피와 함께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 문둥병자의 정결의식에 제사와 함께 세가지의 것들이 함께 사용되었다(레위기 14장).

* 죄로 인한 정결제사를 드릴 때에도 세가지의 것들이 함께 사용되었다(민수기 19장).

라. 번제단에서는 육적인 것을 죽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식이 있다.

[히 9: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하여 거룩케 하거든 [히 9: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사 1: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사 1:1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라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사 1: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 1) 제물로 바칠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한 것은 죄의 전이의식이었다(레 4:4).
- 2) 모든 제물은 번제단에 태워지기 전에 번제소에서 죽임을 당하여야만 했다(레 4:29).
- 3) 번제단에서 우리의 육적인 것을 죽이다(레 6:12, 레 4:10).
- 4) 하나님께 지은 죄를 사죄하고(속죄제), 사람에게 지은 죄를 사죄한다(속건제).
- 5)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성령세례를 말한다. 성령세례가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롬 10:9-10).

[레 4:4]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레 4:29]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레 6:12]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찌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를찌며

[레 4:10]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롬 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3. 거룩하게 만듭니다.

가. 짐승의 피가 성막에 흘러지는 이유는 제물

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다
(레 17:11).

- 1) 그래서 제물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짐승
에게 안수했다(레 4:4).
- 2) 이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함이다(요일 1:9).

나. 성막에서 흘린 짐승의 피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과 번제단 주변에 뿌려졌다. 이는 성막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레 4:17-18).

- 1) 제물로 바쳐진 짐승은 반드시 피흘림으로
죽어야만 했다.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은
모두 번제소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
(레 4:29).
- 2) 성막뜰에는 항상 짐승의 피가 가득했다.

[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
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
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 4:4] 곧 그 수송아지를
희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
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
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
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
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

[레 4:17] 그 제사장이 손
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
호와 앞,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레 4:18] 또
그 피로 희막 안 여호와 앞
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희막문 앞 번제
단 밑에 쏟을 것이며

[레 4:29] 그 속죄제 희생
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
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
이니

번제소에서 짐승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번제소에는 항상 짐승의 피가 가득했으
며, 짐승의 피는 번제단 밑에 부어졌다
(레 4:7, 왕상 8:62-65).

- 3) 번제단 사면에 짐승의 피가 뿌려졌다. 이
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 받으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레 3:2, 레 17:11, 레 16:19).
- 4) 번제단 뿔에 짐승의 피가 발라졌다. 이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견고
해짐을 의미한다(레 8:15).
- 5) 번제단 밑에 짐승의 피가 부어졌다. 이것
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 다
사해졌음을 의미한다(레 8:15).
- 6) 분향단에 짐승의 피가 발라졌다. 이는 예
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 우리의 기도
가 하나님께 상달됨을 뜻한다(레 4:7).

[레 4:7]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
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
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왕상 8:62] 이에 왕과 왕
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
니라 [왕상 8:63] 솔로몬
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
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
가 이만 이천이요 양이 십
이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
호와의 전의 낙식식을 행
하였는데 [왕상 8:64] 그
날에 왕이 여호와와 전 앞
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
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
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
으니 이는 여호와와 전 앞
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
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왕상 8:65] 그 때에 솔로
몬이 칠일 칠일 합 십 사일
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
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
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
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레 3:2]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
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
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
면에 뿌릴 것이며

[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
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
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7) 지성소 휘장 앞에 짐승의 피가 뿌려졌다.
이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더욱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다(레 4:6).

8) 속죄소 주변에 짐승의 피가 뿌려졌다. 이
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거룩함을 얻게 한다(레 16:14).

9) 속죄소에 짐승의 피가 뿌려졌다. 이는 예
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
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영광
을 체험하지 못함을 뜻한다(레 16:15).

다. 성막에서 흘린 피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한다

1)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몸소
피흘림을 당하시고 죽으셨다(히 13:11-
12).

[레 16:19]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번 뿌
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
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
요

[레 8:15]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귀퉁이 뿔
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
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
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레 4:7] 제사장은 또 그 피
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
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
단 밑에 쏟을 것이며

[레 4:6] 그 제사장이 손가
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일곱번
뿌릴 것이며

[레 16:14] 그는 또 수송아
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
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
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번 뿌릴
것이며

[레 16:15]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
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
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
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
찌니

[히 13:11]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
사름이라 [히 13:12] 그러
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2) 성막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든 짐승들의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있다(히 9:11-12).

3) 주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보다 거룩해 집니다(히 13:12).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 9:11]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 13: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4. 죄를 속죄한다.

가.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속죄한다.

1) 물두멍에도 주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다.
이는 물두멍을 통해 죄사함을 위한 씻김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2)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다(출 30:19-20).

[출 30:19]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출 30:20]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나. 성막 바깥에는 피흘려 죽은 속죄제물이 불태워졌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흘리셨으며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성막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한다.(히 13:11, 요 14:6)

다. 대제사장은 속죄소에 염소피를 뿌림으로 백성의 죄를 속죄하였다(레 16:15).

라. 또한 송아지 피로 자신의 죄를 속죄하였다(레 16:14).

마. 이처럼 주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속죄받을 수 있다(요일 1:7).

[히 13:11]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히 13: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레 16:15]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찌니

[레 16:14]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번 뿌릴 것이며

[요일 1: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 이 빛이 우리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5. 마귀를 쫓아내는 힘이 있다.

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다.

- 1)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 2) 주님의 보혈의 권세는 예전에만 일어났던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일어나는 역사이다.
- 3)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마다 마귀의 방해는 떠나가고 없다.

나.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주님의 보혈이다.

- 1) 귀신들린 사람에게 주님의 보혈을 뿌리게 되면 매우 빠르게 축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 2) 이는 주님의 보혈이 뿌려질 때 그 사람에게 숨어있는 귀신들이 주님의 보혈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다. 주님의 보혈은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요일 3:8).

- 1) 주님의 보혈은 악한 귀신들에게는 매우 고약스러운 냄새가 납니다.

- 2) 피의 냄새는 우리가 맡아도 역겨운 냄새이다. 하지만 귀신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참을 수 없는 냄새이다. 그래서 귀신들이 주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얼씬거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를 거두셨듯이 우리 또한 마귀를 대적하며 살 수 있다(약 4:7).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약 4: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 1) 한 번 빠져나간 귀신은 이전에 거주하고 있었던 집을 못내 그리워한다. 그래서 수시로 다시 들어가려고 노력한다. (마 12:43-45)
- 2) 이렇게 다시 들어오려는 귀신을 막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불과 주님의 보혈밖에 없다.
- 3) 주님의 보혈은 이러한 흔적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일종의 시멘트로 바르는 것과 같다. 구멍나고 흠이 난 곳을 시멘트로 바르면 빈 틈도 없을 뿐더러 이전에 어떠한 곳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이렇듯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 곳에는 더 이상 악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

[마 12:43]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마 12:44]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마 12:45]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6. 능력을 받게 한다.

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 1) 속죄소에는 반드시 주님의 보혈이 뿌려져야 한다
- 2)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다.
- 3) 오직 1년에 하루(대 속죄일, 7월 10일)만 들어갈 수 있었다(히 9:7).
- 4)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마 27:51, 히 10:19-20)
- 5) 그래야 속죄소를 지키고 있는 두 그룹을 통과하여 언약궤에 들어갈 수 있다(출 25:20)

[히 9:7]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 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마 27: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출 25:20]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나. 속죄소를 통해 언약궤로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 언약궤로 들어갈 수 있다.

1) 언약궤는 곧 '골방'과 같다.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곧 골방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기도하는 것과 같다(마 6:6).

2) 예수님께서서는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하나님과 일대일의 기도를 나누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골방 기도를 통해 힘든 공생애 사역을 잘 감당하신 것이다(막 1:35). 이는 언약궤기도를 드리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중에 단 한 번도 제자들과 함께 통성기도를 하지 않으셨다. 항상 주님은 골방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골방기도를 가르치셨다(막 9:29). 이러한 골방기도는 곧 언약궤기도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막 1:35] 새벽 오하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막 9:29] 이르시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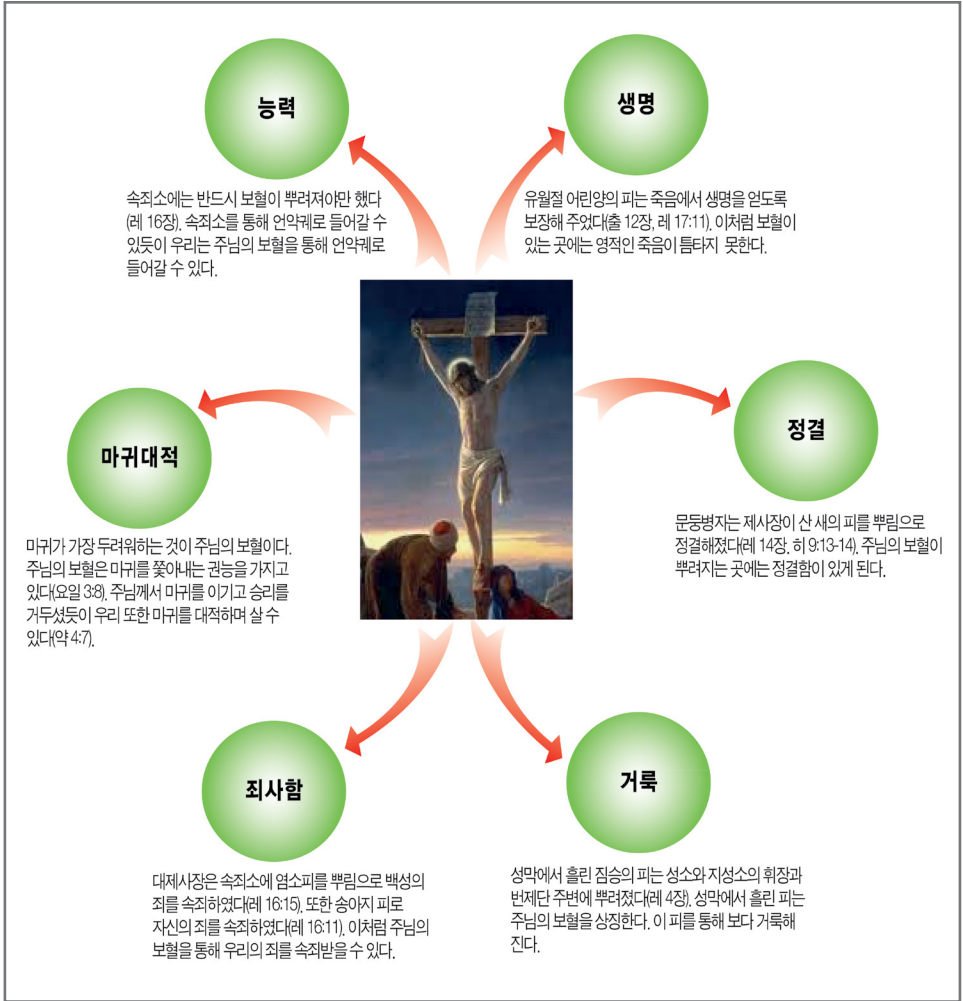
- 4)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골방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 받으신 것이다(행 10:38). 오늘날 우리도 언약궤기도를 통해 능력을 부여 받을 수 있다.

[행 10:38]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 5) 베드로와 바울은 이러한 골방기도를 통해 깊은 영광 충만한 기도를 하였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었다(행 10:9-11, 행 22:17). 이는 저들이 언약궤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행 10:9]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육시더라 [행 10:10]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행 10:11]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행 22:17]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영맥)성경맥잡기반교재

초판발행 2016. 9. 10
지 은 이 데이빗
퍼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예스터목사)
홈페이지 www.WalkingWithBible.com / www.LivingWaterChurch.co
이 메 일 mail@walkingwithbible.com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초강추!
CHANCE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